

1. 현대시/고전시가

2009.06 [20~23]

'여승, 못 위의 잠, 결빙의 아버지'

(가) 백석, '여승'

작품해설 : 이 시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스런 삶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가 절에서 여승을 만나고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이 과거 회상의 형식으로 제시되며, 왜 여승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남편을 찾아 헤매다, 딸까지 죽게 되자 여인은 여승의 길을 택한 것이다. 가족이 해체되는 여인의 모습에는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의 고단했던 삶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주제] 한 여인의 비극적 삶에서 느끼는 서러움

(나) 나희덕, '못 위의 잠'

작품해설 : 화자는 못 위에서 꾸벅이며 잠을 자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보며 유년 시절 고단한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고 있다. 겉으로 범주가 다른 두 대상을 그려내고 있지만, 제비는 바로 화자의 아버지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현재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작은 제비집, 갓 태어난 새끼들, 날개로 동지를 덮은 어미, 못 위에서 잠을 자는 제비는 각각 화자의 유년 시절의 좁은 골목길, 나를 포함한 아이 셋, 피곤에 지친 화자의 어머니, 한 걸음 늦게 따라오는 아버지의 모습에 대응되고 있다.

[주제] 유년 시절의 아버지에 대한 회상과 연민

(다) 이수익, '결빙의 아버지'

작품해설 : 이 시는 어머니에게 말하듯이 대화체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화자는 어린 시절 자신을 감싸주었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기에 그 사랑이 더욱 절실히 그리울 뿐이다. 이러한 화자에게 어린 물살을 품고 흐르는 한강물은 바로 어린 시절 화자가 느꼈던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비록 차가운 얼음으로 형상화되었지만,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고 있는 얼음은 따뜻한 아버지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주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20.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시적 화자인 '나'는 여승을 만나면서 여승의 과거를 떠올린다. 그리고 이 여인의 과거의 삶이 펼쳐지며 왜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보여지는데 이것이 시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못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보며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못 위에 앉아 불안하게 밤새 꾸벅거리는 제비의 모습이 어린 시절 실업자로 힘든 삶을 살

았던 아버지와 유사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화자는 당시 아버지의 심정을 어른이 되어서야 이해하고 있다. (다)에서 화자는 예닐곱 살 적 겨울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던 체험을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요즈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절실히 그리워하고 있다. 그러던 중 한강교를 건너면서, 흐르는 어린 물살을 품고 흘러가는 물을 보며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고 있다. 결국 세 작품 모두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를 부각시킨 작품은 없다. ③ (가)에서 한 여인이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고난의 현실이 나온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현실을 포용하기보다는 고발하고 있다. (나)에서도 아버지가 실업하고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아버지에게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다)는 어머니께 말하듯이 대화체를 사용하고 있다. ⑤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낸 작품은 없다.

21. 추론적 사고(작품의 비교 감상)

정답해설 : (가)는 화자가 여승을 만난 이후 이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삶의 모습을 시간 순(2,3,4연)으로 보여주고 있다. 남편을 찾으러 금점판을 헤매던 여인이 딸까지 잃고 여승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눈물을 자극할 만하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장면을 담담히 서술하고만 있을 뿐이다. 반면에 (나)에서 화자는 못 위에서 꾸벅거리는 제비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 실업자였던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실업자였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 했던 어머니, 그리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화자는 이제야 그때의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여승이 (나)에서는 제비가 시상을 유발하고 있다. ② ③ (나)에서는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제비의 모습을 통해 유년 시절 아버지에 대한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을까요', '-던가요'의 어조가 친근감을 주고 있다. ⑤ (가)의 냇물같이 늙은 여승, 불경처럼 서러워진 화자, 섭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등에서, (나)의 못 위에 앉아 꾸벅거리고 있는 제비로 표현된 아버지, 반쪽 난 달빛같이 창백한 어머니 등에서 비유적으로 표현된 인물을 엿볼 수 있다.

22.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비좁은 골목은 화자가 어린 시절 경험했던 궁핍한 삶이 영위되는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여인은 금점판에서 옥수수를 팔며 지아비를 찾고 있다. ② 여인은 딸이 죽어버리자 여승이 되기로 생각한 것이다. ③ 어린 시절 실업자였던 아버지는 버스 정류장에서 세 아이를 데리고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부인을 기다리며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생각했을 것이다. 화자는 이제서야 그때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 ④ 그럴듯한 집 한 채에는 아버지의 바람이 담겨 있다.

23. 비판적 사고(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화자는 어린 시절 추위로부터 자신을 따뜻하게 해 주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사랑을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운 것이다. 그런데 한강교를 지나면서 어린 물살을 품 안에 안고 흘러가는 한강의 물길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고 있다. ‘얼어붙은 잔등’은 혹한이라는 시련을 막아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얼음’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던 아버지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고 있다. **[정답] ④**

2010.06 [13~16]
'발열, 거문고, 대설주의보'

(가) 정지용, ‘발열(發熱)’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열병을 앓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잘 형상화하고 있다. 열병을 앓고 있는 자식의 고통스런 상황이 잦은 침표의 사용과 도치의 표현을 통해 잘 드러내고 있다. 자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은 ‘아아’의 반복적인 표현 속에서 그대로 느껴지고 있으며, 아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는 화자의 마지막 모습이 진한 여운을 남기고 있다.

[주제] 고통을 겪고 있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애타는 마음

(나) 김영랑, ‘거문고’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소리를 마음껏 내지도 못한 채 벽에 기대선 ‘거문고(기린)’를 통해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자유를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는 화자의 답답함과 비애 어린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과 억압의 상황에서 자유를 구가하지 못하는 작가는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시대를 잘못 만나 제 곡조를 잃어버린 ‘기린(거문고)’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망국의 설움 속에서도 마음껏 울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국권 회복에 대한 화자의 염원을 읽어낼 수 있다.

[주제] 암울한 시대 상황의 비극적 인식

(다) 최승호, ‘대설주의보’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온 산과 골짜기를 덮는 눈을 통해 1980년대 군부의 계엄령 상황이라는 암울한 시대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 눈보라의 대설주의보를 ‘눈보라의 군단’, ‘백색의 계엄령’으로 표현한 것에서 작가의 의도가 분명하게 읽힌다. 이러한 눈보라는 길을 끊어 놓을 듯하고, 연약한 굴뚝새를 숨게 만들며, 그 위세는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릴 듯하다.

[주제] 자유를 억압하는 암울한 시대 상황 비판

13.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화자의 어린 아들이 열에 앓고 있는 모습이, (나)에는 화자가 지켜보고 있는 ‘기린(거문고)’가 울지 못하는 상황이, (다)에는 눈보라 속에서 ‘굴뚝새’가 처한 상황이 부각되어 시적 정서가 형성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나는 중얼거리다’의 문장이 반복되면서 운율감이 느껴지고 있지만, 시행이 반복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에서도 시행의 반복이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에서 명사로 끝난 시행은 11행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반복이 시적 여운을 주었다고 할 수 없다. (다)에서는 명사로 끝맺은 시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며 화자가 인식하는 암담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③ (나)에는 거문고가 기린으로 의인화되었다. 또한 (다)에는 눈보라가 힘찬 군단으로 표현되어 마치 군대를 연상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의인화의 표현이 독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에서의 표현은 계엄령 하의 군대를 연상시키기에 강한 거부감을 불러온다. ④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이 느껴지는 작품은 (가)이다. (가)에서 2행은 ‘포도순이 소리 없이 기어 나가는 밤’으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소리 없이’를 행의 맨 뒤로 보냈으며, 4행은 ‘등에 훈훈히 서리나니’로 표현되어야 자연스러운데 ‘훈훈히’를 행의 뒤로 보냈고, 6행에서는 ‘박나비처럼 드내쉬노니’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을 도치하여 표현했다. 또한 8행과 9행 역시 도치되어 표현되었는데, 이러한 어순의 도치는 작품 전반에서 긴장감을 느끼게 한다.

14. 비판적 사고(영상시 제작 계획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의 아이는 열병을 앓고 있다. 화자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도 안타깝게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화자의 절망적인 상황이 ‘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으로 표현되었으며, 아득한 하늘을 바라보는 화자의 망연한 표정이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C]의 장면을 B, S처럼 영상화하는 것이 의식이 흥미해진 ‘애’의 상태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 장면에서 시선은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면서 처마 밑 어느 집에 고정되고 있다. 시간은 밤이요, 땅에 스며든 더운 김이 등에 서린다는 표현에서 더운 계절임을 알 수 있다. ② 아이는 지금 열병을 앓고 있기에 ‘박나비, 주사’의 표현에서 열병의 붉은 색이 두드러지고, 아이의 가쁜 호흡을 음향으로 들려주면 아이의 고통스런 상황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아이의 앓고 있는 모습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준다면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공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④ ‘아아’의 감탄사는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5. 비판적 사고(외적 증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는 (나)의 작품이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암울한 시대적 상황 하에 탄생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결국 두 작품을 감상함에 있어 일정한 준거로서의 틀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에서 '노인'은 국권이 자유로울 때 '기린'을 마음껏 울게 했던 존재로 추억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화자의 '기린'은 이제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다)의 '굴뚝새'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기보다 계엄령으로 표현된 눈보라 속에서 고립된 존재라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나)는 '모국어로 시를 쓰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시대에 쓰였다고 했다. (다) 역시 '새로운 권력 집단이 등장해서 강압 통치를 했던 시대'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② (나)에서 화자는 마음껏 울지 못하는 시대 상황에 절망하고 있다. 지금은 '이리떼, 잔나비떼'만 울려다니고 있는 암울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난 극복 의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읽어낼 수 없다. (다)는 눈보라의 상황 속에서 파닥이며 힘겹게 날아가는 '굴뚝새'에게서 암울한 시대 상황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읽어낼 수 있으나 '굴뚝새'는 '뒷간'에 몸을 감추고 만다. 그렇기에 여기에서도 고난의 극복 의지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읽어낼 수 없다. '대설주의보, 군단, 계엄령'으로 표현된 암울한 상황만이 강조되고 있다. ③ (나)의 '울지를 못한다'의 대상은 표면적으로는 '기린'이지만, 동시에 화자를 가리키기도 하는 중의적 표현이다. (다)에서 '내리는' 역시 그 대상은 '눈'이면서 동시에 '계엄령'이라 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이리떼'와 '잔나비떼'는 '내 기린'을 제약하는 것이며, (다)에서 '술개'는 '굴뚝새'를 '뒷간'에 숨게 만든다.

16. 추론적 사고(시적 상황에 대한 파악)

정답해설 : [D]에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문 아주 달고 벽에 기댄 채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기린'의 상황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달힌 공간은 바로 화자 스스로가 선택한 은거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E]는 '산짐승'들로 하여금 길 잃고 굶주리게 하며, '소나무 가지'를 부러뜨리려는 눈보라가 내려치는 상황이다. '굴뚝새'마저 몸을 감추게 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고립의 공간인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D]는 화자가 선택한 고립된 공간이며, 동시에 내면의 성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E]의 공간은 존재들을 억압하는 외부적 공간이다. ② [D]와 [E]의 상황 모두 화자를 힘들게 하고, 심리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③ [D]에서 표면에 드러난 화자 '내'는 '기린'이라는 대상을 관찰하여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E]에서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대상에 대한 관찰과 묘사만 드러나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대상인 '기린'과 일체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E]에서 화자는 대상인 '눈보라'와 거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2011.06 [19~22]
'강우, 성탄제, 서해'

(가) 김춘수, '강우(降雨)'

작품해설 : 아내의 죽음으로 인한 허전함과 슬픔을 그린 작품이다. 아내의 부재를 받아들일 수 없기에 화자는 일상에서 아내를 찾는다. 그러나 아내는 그의 곁에 없으므로 그의 행위는 공허하기 짝이 없다. 아내가 없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화자는 풀이 죽는다. 그리고 그의 어두운 마음처럼 비가 내린다. 일상의 공간에서 일어날 법한 장면을 통해 아내를 잃은 상실감을 잘 표현한 작품이다.

[주제] 아내를 잃은 슬픔과 절망감

(나) 김종길, '성탄제'

작품해설 : 어린 시절의 아버지를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작품이다. 6년까지가 회상이고 나머지가 현재이다. 잦아들던 어린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눈 속에서 약을 구해 돌아온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이 시공을 뛰어넘어 서른 살이 다 된 화자의 이마에 느껴진다. 화자가 살아가는 현실은 따뜻한 사랑이 넘치던 예전의 그 공간이 아니라 삭막한 도시이다. 그래서 화자는 더욱 더 붉은 산수유 열매 같은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것이다.

[주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다) 이성복, '서해(西海)'

작품해설 : 애뜻한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다. 간절히 그리워하면서도 그 그리움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내 다 가보면 당신 계실 곳이 남지 않을 것이기에' 가보지 않고 당신 계실 자리를 남겨둔다고 배려해 줌으로써 애뜻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 그럼에도 화자는 당신이 있을 곳을 늘 마음 한쪽에 지니고 있다고 하여 그리움의 정서가 결코 약한 것이 아님을 알리고 있다.

[주제] 그리운 이에 대한 배려와 안타까운 그리움

19. 추론적 사고(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넙치지지미 맵싸한 냄새', 메아리로 돌아오는 화자 자신의 '목소리', 어둠 속에 내리는 '비' 등의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이용하여 '이 사람'(아내)의 부재라는 화자의 현실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나)에서는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에서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로 서러움과 그리움을 촉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화자의 현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는 '내 가보지 않은 한쪽 바다는 / 늘 마

음속에서나 파도치고 있습니다'에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파도의 움직임이라는 역동적인 감각으로 나타나 있다. **[정답] ④**

20. 비판적 사고(작품 간의 특징 비교)

정답해설 : (가)에 부재하는 아내를 그리워하는 정서가 잘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나)에도 어렸을 때 자신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는 아내가 없는 집에서 빈자리를 느끼며 허전한 마음을 독백조의 말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② (나)에는 '눈'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③ (가)에는 아내의 부재를 느끼고 있는 현재의 장면만 제시되어 있지만, (나)에는 어린 시절 아팠던 때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⑤ (가)에서는 '비', (나)에서는 '붉은 산수유 열매'를 통해 시상이 집약되어 나타나 있다.

21. 추론적 사고(시구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화자는 아내가 곁에 있던 때 그랬던 것처럼 '옆구리 담배가 도졌다'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 그러나 곧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는 '이번에는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말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밥상은 사실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이 아니다. 아내는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화자의 마음 상태가 평온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은 화자와 '이 사람' 사이의 소통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이다.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할 아내가 없기에 메아리가 되어 돌아온다고 한 것이다. ④ ㉢은 아내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나서 느끼는 허전함과 쓸쓸함을 의미한다. ⑤ ㉣에는 지금은 아내를 만날 수도 없고 그 존재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 체념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22.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3연에서 '계실 자리'와 '가보지 않은 곳'이 바다를 가리킨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남겨두어야 할까봅니다'는 '당신'에게 가야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는 시구가 아니라, '당신'이 그림지만 그를 배려하여 그곳으로 가지 않겠다고 애쓰는 마음을 나타낸 시구이다. **[정답] ④**

2015.06B [43~45]

'도산십이곡'

이황, '도산십이곡'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총 12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로 전반부인 전(前) 6곡의 언지(言志)와 후반부인 후(後) 6곡의 언학(言學)으로 나뉘어 있다. 전 6곡인 언지는 자연에 동화

된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감흥을, 후 6곡인 언학은 학문과 수양의 자세를 노래한 것이다. 제시문에 실린 작품은 전 6곡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작자가 세운 도산서원 주변의 경관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감흥과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벗하며 살고 싶은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전 6곡(제시문 부분):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싶은 소망 후 6곡: 학문 수양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

43.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제3수에 나타난 시적 대상은 '순풍'과 '인성'으로 표현된 세상의 순박한 풍습과 사람들의 어진 품성이다. 반면에 제4수에서는 시적 화자에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는 자연인 '유란', '백운', 그리고 그리운 임금이 시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적 대상을 반복적으로 다룬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작자 자신을 '초야우생'(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천석고황'(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 생긴 깊은 병)을 통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자연을 벗 삼아 자연에 묻혀서 안분지족의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며 전 6곡의 주제인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싶은 소망'을 환기하고 있다. ② 제2수에서는 자연을 벗 삼아 태평성대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면서 허물이나 없기를 바라는, 화자가 자신의 삶에서 바라는 개인적인 소망에 화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이 제3수에서는 세상의 순박한 풍습과 사람들의 어진 품성을 강조하며 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④ 제4수에서는 골짜기에 있는 '유란'과 산에 있는 '백운'을 통해, 제5수에서는 산 앞에 있는 높은 대(臺)와 그 대 아래 흘러가는 물, 그리고 때 지어 오락가락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통해 화자가 머물며 바라보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을 심화시키고 있다. ⑤ 아름다운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이 초장에서는 봄과 가을의 한 계절씩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중장에서는 사시, 즉 일 년 사계절로, 종장에서는 영원한 것으로 시간이 점층적으로 확대되어 표현되어 있다. 이런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 자연 속에 묻혀서 살고 싶어 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추구라는 전 6곡의 주제 의식이 집약되어 표현되었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갈매기'는 자연 풍경을 구성하고 있는 한 대상으로, 이것에는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이 투영되어 있다. 하지만 현자를 뜻하는 '교교백구'는 이 작품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교백구'는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으로서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연하’는 안개와 노을을, ‘풍월’은 바람과 달을 뜻하는 말이다. 둘 다 화자가 동화되고자 하는 자연으로서 화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소재이다. ② ‘순풍’은 세상의 순박한 풍속을, ‘인성’은 사람들의 어진 품성을 나타내는 말로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말해 준다. ③ ‘유란’은 그윽한 난을, ‘백운’은 흰 눈을 뜻하는데 모두 화자가 바라보며 만족감을 느끼는 대상이다. ⑤ ‘화만산’은 산에 가득한 꽃을, ‘월만대’는 대에 가득한 달빛을 뜻한다. 꽃과 달빛은 모두 자신이 벗어 즐거움을 느끼고자 하는 대상인데, 이것들이 산과 대에 가득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꽃과 달빛이 가득한 자연의 풍경에서 화자가 충만감을 느끼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45.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도산십이곡’은 제3수의 세상의 순박한 풍속과 사람들의 어진 품성을 말하는 부분에, 제4수의 임금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말하는 부분에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화자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그리고 작품 전체를 통해 한 개인으로서 자연과 벗하여 살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 있다. <보기>는 ‘성군의 가르침을 노래하리라’는 부분을 통해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화자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셋째 문단의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면~늙은이가 되리라.’에서 전원의 별장과 고향에서 즐거운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도산십이곡’과 <보기> 둘 다 자연에서 지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드러나 있는데 이것은 지배층의 핍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사는 삶이 즐거워서이다. 또한 둘 다 은둔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보다는 번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한가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현재 머물고 있는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이미 부친에게서 별장을 물려받았으며 자연 속에 위치한 이 집에서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두 화자 모두 불운하다거나, 살림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고 말하기 어렵다. ④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초야[시골]의 자연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어떤 삶의 물질적 여건이 필요함을 상정한다거나 강조하고 있지 않다. <보기>는 별장에서 전원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데 전원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은 별장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된 계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삶의 물질적 여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속세가 아니라 자연 속에 있다. <보기>의 화자는 현재 속세에 살고 있으며, 전원엔 있는 별장에 서의 삶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지으며 살기를 소망하고 있으므로 속세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내용은

부적절하다.

**2015.11B [43~45]
‘고향 앞에서, 낡은 집’**

(가) 오장환, ‘고향 앞에서’

작품해설 : (가)는 일제 강점기 고향을 떠난 화자가 그리운 고향을 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슬픔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고향 가까운 나룻가를 서성이고 고향 가까운 주막에 들러 고향의 소식이나마 듣고자 한다. 그러나 전나무 우거지고 집집마다 누룩 또는 냄새 가득하던, 훼손되지 않은 고향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고향을 잃은 민족의 슬픔과 설움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고향을 잃은 슬픔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나) 최두석, ‘낡은 집’

(나)는 가난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정이 느껴지는 고향의 모습을 담당한 어조로 그려낸 작품이다. 부모와 동생이 사는 고향집은 ‘슬레이트 흙담집’, 제목 그대로 ‘낡은 집’이다. 여전한 고구마 뒤희와 벽에 매달린 메주들의 박치기는 화자가 애정을 갖고 고향 집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 준다. ‘허리 굽은 어머니’, ‘닭똥으로 비료 만드는 공장에서 어두워질 때까지 일하는 아버지’에 대한 묘사에서 가난하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가족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드러난다. 또한 콩깍지로 군불을 피워 주는 어머니, 화자를 반겨 주는 동생, 아들을 위해 오리를 잡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과장되지 않은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다.

[주제] 고향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안타까움

43. 화자의 정서, 태도

정답해설 : (가)의 2연에는 고향 가까운 나룻가를 오가는 행인에게서조차 온기를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 있다. (나)에서 화자는 고향집을 ‘나의 부모인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이 사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화자가 익숙한 시선에서 벗어나 고향집을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의 4연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에서 조상이 있는 공간은 화자가 회복하고 싶은, 화자의 뿌리인 고향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무덤 속에’ 잠자는 조상을, 권위가 지속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며, 화자가 고향을 벗어나고자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나)의 화자는 고향을 가난이 지속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곳을 벗어나고자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가)의 화자는 ‘행인의 손을 쥐면 따뜻하리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주인집 늙은이’와 슬픈 심정을 나누기도 한다. 따라서 각박한 인심에 좌절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나)에서 세상의변화나 인심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④ (가)의 화자는 고향을 잃은 신세이며 (나)에서 화자는 공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고된 삶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가)에서 '전나무 우거진 마을'은 화자의 마음 속 고향의 모습이자 화자가 회복하고자 하는 고향을 형상화한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의 조화를 화자가 내세우는 가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나)의 화자는 농부인 아버지가 공장에서 밤늦도록 일을 하며 '차비 정도를 버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으므로 산업화를 통한 농촌의 변화를 희망한다고 보기 어렵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㉔은 장꾼들에게 말하는 형식을 빌어서, 실상 고향 잃은 화자의 설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에게 묻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독백조의 토로라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봄이 되어 강의 얼음이 갈라지고 강물에 얼음장이 떠내려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② 고향에서 지냈던 행복한 추억들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자신의 가족을 '농부 내외와 그들의 딸'로 지칭해 마치 제3자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⑤ 텅 빈 집 안과 선뜩한 냉돌에는 가난한 농촌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4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주인집 늙은이가 눈물지우는 것은 화자의 슬픔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주인집 늙은이의 슬픔에 화자가 공감한다는 것은 적절한 이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보기>에서 고향을 떠난 이가 복귀하려는 고향은 따뜻한 공간으로 표상된다고 하였다. (가)의 6연에서 고향이 평화롭고 따뜻한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가난한 농촌 현실과 그곳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나)에 그려진 고향은 이상적인 공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어머니가 군불을 피우고 동생이 화자를 반가워하며 아버지가 오리를 잡는 것은 고향의 따뜻함과 가족애를 보여 주는 소재들이다. ⑤ (가)에서 귀향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나)에서 귀향은 이상적 공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는 점에서 (가)와 (나) 모두 귀향의 완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8.09 [20~22]

'플라타너스, 달'

(가) 김현승, '플라타너스'

지문해설 : (가)는 '플라타너스'에게 인격을 부여하여 말을 건네며 플라타너스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고자 하는 화자의 내면을 투영하고 있다. 화자는 플라타너스를 꿈을 가진 존재, 넉넉한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덕성을 지닌 존재로 보고 있으며 외로운 삶을 함께해 준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플라타너스와의 교감과 합일을 소망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유한성을 깨닫고 안타까워하며, 생의 마지막까지 플라타너스를 인생의 동반자로 삼아 함께 이상을 지향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주제] 고독한 삶의 동반자인 플라타너스

(나) 정지용, '달'

지문해설 : (나)는 달빛에 비친 풍경의 아름다움과 그에 대한 감흥을 다양한 비유와 감각적인 표현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한밤중에 달빛에 이끌려 나온 화자는 홀로 마당을 바라보고 있는데, 달빛에 비친 마당의 모습은 마치 호수의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나)는 달빛을 받아 더욱 곱게 보이는 흰 돌, 달그림자로 인해 수목색으로 짙게 보이는 녹음 등을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그 광경에 숨소리, 비둘기의 울음소리 등의 청각적 이미지와 오동나무의 꽃향기라는 후각적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달밤의 고즈넉한 정취를 더하고 있다.

[주제] 달빛에 비친 조화로운 풍경에 대한 감흥

20.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매 연마다 '플라타너스'를 반복적으로 부르며 '플라타너스'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소망 등을 드러내고 있다. (가)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인 표현을 통해 작품의 초점을 '플라타너스'라는 중심 대상으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에서는 반어적인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해 대상의 이중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가)의 1연에서 '파아란'이라는 색채어를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플라타너스가 꿈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를 통해 플라타너스가 고풍스러운 모습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다. ④ (가)에서 '찾어 있다', '늘인다'와 같은 현재형 진술을 사용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플라타너스의 덕성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며, 이를 통해 플라타너스가 역동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에서 '하늘', '별' 등에 대해 지향하는 것은 상승적인 이미지와 연관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를 통해 사물의 변화 과정이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2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홀로 되어 외로울 제'라고 인식하며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㉔은 화자의 적막한 처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밤중에 달빛이 마당을 비추는 광경을 '홀로 보'면

서 고요하고 정감 어린 정취를 표현하고 있으므로 ㉠을 통해 고즈넉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은 (가)의 화자 자신이 느낀 고독감을 드러내는 표현이므로, 이를 통해 대상과의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관조적인 자세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나)의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을 통해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② ㉠은 (가)의 화자가 경험한 시련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시련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나)의 화자도 ㉠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화자 자신의 과거 추억을 환기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가)에서 화자가 무기력한 태도를 느끼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을 통해 무기력한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나)의 화자는 달밤의 풍경을 보며 정서적 감흥을 얻고 있으므로 담담한 태도로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⑤ (가)의 화자는 ㉠에서 고독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이로 인해 현실에 대한 회의감을 부각한다고 볼 수 없고, ㉠은 (나)의 화자의 현재 상황과 관련되므로 이를 통해 앞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 ‘창’은 <보기>에서 언급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 세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창’ 자체가 이상 세계의 완전함을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에서 화자는 ‘영창’을 통해 달빛이 비치자 밖으로 나가서 ‘마당’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창’은 방안과 바깥을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자의 내면세계와 외부 세계를 잇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영창’ 자체가 화자의 만족감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화자는 고독한 여정인 ‘길’을 ‘플라타너스’와 함께 걷는 모습을 통해 사물인 ‘플라타너스’와의 교감을 보여 주며, (나)의 화자는 달빛에 비친 ‘흰 돌’을 의인화하여 ‘이마’가 ‘유달리’ 곱다고 함으로써 사물에서 느낀 아름다움을 통해 사물과 교감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② (가)의 화자는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하는 어느 날’까지 ‘플라타너스’와 함께하고자 하므로 ‘어느 날’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삶의 여정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나)의 화자는 ‘밀물’처럼 밀려온 ‘달’을 접하고 마당에서 달빛에 비친 ‘한밤’의 정취를 느끼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조화로운 풍경을 포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화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곳을 ‘아름다운 별’이 있는 곳이라고 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마당’에 달빛이 가득한 모습을 ‘호수’에 비유함으로써 각각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다할 때까지 ‘네 이웃이 되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내어 <보기>에서 제시한 구도의 ‘길’을 플라타너스와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화자는 ‘오동나무 꽃’을 ‘뭇 견디게 향스럽다’고 함으로써 달빛에 어우러진 사물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복합지문

2008.09 [20~24]
‘상춘곡, 어옹, 동원화수기’

(가) 정극인, ‘상춘곡’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전 79수로 된 가사로 글쓰이가 벼슬을 사임하고 향리인 전라도 태인으로 돌아가 만년을 지내면서 봄날의 흥취에 한껏 젖어 온갖 풍류의 즐거움을 노래한 것이다. 다양한 표현기법과 고사의 사용을 통해 자연 속의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은 부귀와 공명을 욕심 내지 않고 청풍과 명월을 벗하는 안빈낙도의 생활 자세를 지니며 살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 노래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표방하는 은일가사의 첫 작품이며, 송순과 정철로 이어지는 호남 가단 형성의 계기가 되는 작품으로도 평가된다.

[주제] 봄의 경치를 완상하며 자연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나) 설장수, ‘어옹’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세속의 명예와 욕심을 버리고 어옹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삶의 모습은 ‘물, 구름, 호수, 안개, 달, 배’ 등 자연의 이미지로 나타나 있으며, 이와 대립되는 세속적 삶을 보여주는 것으로는 ‘헛된 이름, 서울 길, 붉은 먼지, 옥당’ 등이 있다. ‘도롱이, 삿갓’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어옹으로서의 화자는 실제 먹고 살기 위해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안분지족하며 살고 있는 은일자로서의 어부라 할 수 있다.

[주제] 은일자인 어부의 삶에 대한 만족감

(다) 남공철, ‘동원화수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글쓰이의 따뜻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위해 대상의 대비적 특성을 나열하고, 이를 대하는 종의 태도를 드러내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실용성도 있는 복숭아나무와 볼품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는 잡목의 대비는 글쓰이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기엔 적절하다. 대상의 외모와 실용성을 중시하여 복숭아나무만을 가꾸는 종의 태도를 꾸짖는 글쓰이의 모습에서 만물에 평등한 화자의 시선을 느낄 수 있다.

[주제] 사물을 평등하게 대하는 바른 태도

20. 비판적 사고(작품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세 작품에서 그려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모두 세속적인 삶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 (가)의 화자는 부귀공명을 꺼리며, 청풍명월의 자연을 벗삼고 있고, 단표누항의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있다. (나)의 화자 역시 세속적 삶과 명예를 멀리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고 있는 어부이지만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드러낸다. (다)는 실용적인 복숭아나무나 아무 쓸모없는 잡목이나 모두 생명을 가진 똑같은 것으로 대하고 있기에,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어느 작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③ (나)에서 자연의 이미지와 인간의 세속적 삶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이 강조되고 있다. ④ 화자나 글쓰이가 현실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작품은 없다. ⑤ 세 작품의 화자 및 글쓰이는 자신의 현실적 삶에 만족하고 있다.

21. 비판적 사고(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화자가 봉두에 올라 멀리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강하게 느껴진다. 반면에 (나)에서는 화자가 살고 있는 자연 풍경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와 더불어 '노랫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로 벗사람인 화자의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라 했으나, 사실 부귀공명이 주체이기보다는 화자가 이러한 것들을 멀리한다는 것이기에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② (나)에서 어부의 삶을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푸른색의 이미지로, 세속적 삶의 모습은 붉은 색의 이미지로 대비되어 있다. ③ (가)와 (나) 모두 마지막을 의문 형태로 마무리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의 의지를 강조하고자 하는 설의적 표현이다. 그러므로 (가)에서는 '이만하면 만족한다.'로, (나)에서는 '부러워하지 않는다.'로 읽어내야 한다. ④ (가)에서는 봉두에 올라서 바라보는 풍경과 더불어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어 있다. (나) 또한 안개 낀 호숫가와 배를 비추고 있는 달빛의 풍경과 더불어 세속을 멀리하겠다는 화자의 정서가 함께 드러나 있다.

22.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는 (나)의 화자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지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해 준다. 즉, (나)의 화자는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하는 어부가 아니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부라 했다. 그러므로 (나)에서의 자연은 화자와 교감과 소통의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달이 배를 비추고 있는 풍경은 화자가 살고 있는 어촌의 평화로운 풍경을 보여줄 뿐이지, 달에 인격을 부여한 표현은 아니다. **[정답] ①**

23. 추론적 사고(작품의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다)에서 '나'는 복숭아나무만을 가꾸고 잡목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종을 나무란다. 종은 복숭아나무가 꽃도 좋고 열매까지 주는 이익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잡목은 미관상으로도 볼 것이 없고, 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라 판단했다. 하지만 '나'는 복숭아나무이든, 잡목이든 모두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에, 종에게 잡목도 가꾸라 명령한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④ '나'와 '종'은 모두 복숭아나무의 실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심미적 가치 또한 인정하고 있다. ③, ⑤ '종'은 잡목의 실용적 가치뿐만 아니라 존재 가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4. 추론적 사고(어휘의 함축성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흥에 겨워 ㉔를 손에 들고 산에 올라간다. 그리고는 산 위에서 마을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풍경에 심취해 있다. 그러므로 ㉔는 화자의 감흥을 자아내는 자연물이라 할 수 있다. ㉕는 (다)의 글쓰이가 복숭아나무나 잡목이나 같은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예로 든 대상이다. 즉, ㉕는 뒤에 이어지는 '가축나무, 상수리나무'와 대비되는 대상이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의미를 추리해 보면 '어진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가축나무, 상수리나무'는 '어질지 못한 이'를 대변하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② 두견화는 봄의 계절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008.11 [13~18]
'와사등, 사령, 한거십팔곡'

(가) 김광균, 와사등

작품해설 : 이 시는 도시를 배경으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시각적 이미지를 잘 활용한 작가답게 이 작품에서도 감각적인 표현과 참신한 비유가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출하고 있다. 작품의 중심 소재가 되고 있는 와사등은 도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으며, 방향성을 상실한 화자의 절망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주제] 도시적 삶에서 느끼는 고독과 비애

(나) 김수영, 사령(死靈)

작품해설 : 이 시는 화자인 '나'와 '벗'의 대화를 기본 설정으로 하여 자유를 억압하는 세력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영혼을 부정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현실까지도 답답함을 호소하며 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자의 양심을 자극하는 것은 바로 활자요, 활자는 자유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화자는 고개를 숙이며 듣고 있을 뿐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이 시에는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

의 비겁함과 소심함을 자책하는 한 시대의 지성인의 양심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자성(自省)

(다) 권호문, 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

작품해설 : 이 작품에는 벼슬길에 나아가려는 세속적인 욕구와 자연에서의 은거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화자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쉽게 마음을 정하지도 못한 채 갈등하고 있다. 작품 전체가 현실 세계로부터 일탈(逸脫)하여 자연 속으로 침잠(沈潛)하기까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노래는 18수의 연시조로 이루어졌으며 강호가도(江湖歌道)의 후기 모습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자연이라는 공간을 문학 속으로 끌어들이 작가의 실존적 모습을 제시한 작품으로 문학사적 의미를 가진다.

[주제] 세속적 삶의 욕구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의 즐거움

13. 비판적 사고(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도시 속에서 방향성을 잃고 삶의 비애에 잠겨 있다. 낮설은 거리와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있지만 정작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 지를 모르고 있다. 고뇌의 원인은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화자가 고뇌에 차 있음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나)의 화자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활자를 고개 숙이고 들으면서 침묵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고요한 현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다. 행동을 해야 함을 알면서도 죽음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자신을 못마땅해 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는 공명의 길과 강호에서 자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길 사이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를 몰라 갈등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의 고뇌는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도피하려는 시도나 의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나)의 화자 또한 행동해야 함을 잘 알면서 행동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기에 도피하고 싶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② (가)에서 미래에 대한 어떠한 모습이나 화자의 인식도 엿볼 수 없다. (다)에서 화자는 마지막 수까지 자신의 길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③ (나)에서 부정적인 세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잘 드러나 있지만, 화자는 이에 대해 대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내면에서는 그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직 침묵만 하고 있기에 자신의 영이 죽은 것이 아니냐며 반성하는 것이다. ④ (나)에서 화자는 현재의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다)의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고자 했으나 지난 십 년을 허둥대며 보낸 것 같아 이러한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14. 추론적 사고(표현상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첫 연과 끝 연을 대응시키는 수미상관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끝 연은 첫 연 이후 전개된 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의 1연에서 화자는 와사등 아래에서 방향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화자의 상황은 2연의 도시적 풍경에 대한 어두운 비유와, 3연에서 낮설은 거리에서의 아우성 소리를 통해 점차 심화되고 있다. 4연에서는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다는 인식에 이어 마지막 연에 이르고 있다. 결국, 마지막 연에서의 반복은 1연에 제시된 화자의 정서가 그만큼 심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다. 처음에는 자유를 말하고 있는 활자를 보며 화자는 자신의 영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이어지는 내용들에서 자신에 대한 자책, 고요한 현실에 대한 부정,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을 거쳐 다시 1연의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연에서는 화자의 자기반성의 정서가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활자를 의인화시켜 화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를 통해 활자의 속성이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15. 비판적 사고(시구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㉔는 긴 여름해가 훌쩍 저 버리는 시간의 흐름을 마치 새가 날개를 접는 듯이 표현한 것이다. 날개가 표현되기는 하지만 날개를 접는다는 것에서 보듯이 이는 상승의 이미지가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시간의 흐름을 물의 흐름에 비유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해가 지는 것을 새가 날개를 접는 것에 비유한 것은 작가의 개성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③ ㉔는 밤이 성큼 다가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밤이 깊어질수록 화자의 슬픔과 고뇌는 심화되고 있다. ⑥에서 화자는 충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니 충효를 이루지 못할까 안타까워하고 있다. ④ ㉔에서 ‘나래를 접고’와 ⑥에서 ‘물 흐르듯’에서 비유가 보인다. ⑤ 날개를 접는 것이나 물이 흐르는 것이나 모두 시각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16.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성 파악)

정답해설 : <보기>에서 설명한 ‘자아와 세계 사이의 분열에 대한 자아의 반응’을 함축하고 있는 시어가 아닌 것을 찾으라고 했다. ㉔의 ‘늘어선’은 건물이 길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화자의 정서나 반응을 엿볼 수가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화자의 내면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③ 도시적 문명에 대한 화자의 거부 반응이 드러난다. ④ 도시에서 느끼는 화자의 내면이 표현되어 있다. ⑤ 와사등의 차가운 느낌은 화자가 도시 문명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대변하고 있다.

17. 비판적 사고(조건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의 정보에 의하면 작가가 서간에서 심신의 안정을 누린 후에 (나)의 작품을 창작했다고 한다. 그런데 작가는 심신의 안정을 찾았지만 생활에 대한 긍정을 지속하지 못하고,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다고 한다. 이러한 반성적 사고가 작품에 반영된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말하는데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부끄러움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이상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반성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므로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답] ②**

18.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연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연시조의 각 연들은 일관된 체계 아래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각 연들은 내적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다)의 제1수에서는 화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충효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제2수에서는 충효를 추구하고자 노력했으나 시간만 흘러가고 이를 이루지 못할까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제3수에서는 충효를 못 이루어도 자연을 추구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길임을 제시하고 있다. '임천'이란 바로 자연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③에서는 '임천'의 좋은 점이 제2수에 드러나 있다고 했다. 제2수에서 추구하는 충효의 길과 제3수에서 추구하는 자연의 길은 서로 다른 길이기에는 잘못된 것이다. 제4수에서는 충효의 길(제2수)과 자연 추구의 길(제3수)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제5수에서는 표현을 달리하며 제4수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정답] ③**

2009.09 [28~33]
'꽃밭의 독백, 나무를 위하여, 만언사'

(가) 서정주, '꽃밭의 독백-사소 단장'

작품해설 : 이 시는 박혁거세의 어머니 사소에 대한 고대 설화를 모티프로 하여 작가가 창조적으로 변용한 작품으로, '꽃'으로 표현된 절대적, 초월적 세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의 화자인 사소는 노래, 말, 산돼지, 산새로 표현된 현실 세계의 경험에서 벗어나 초월적 세계에 도달하고 싶어한다. 그러한 열망이 '문 열어라 꽃아'에 잘 드러나 있다.

[주제] 초월적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

(나)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작품해설 : 이 시는 화자가 나무들에게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자는 어리고 나약한 나무들이 어둠과 비바람 속에서도 손을 잡고 뿌리와 몸통을 키운다면 먼 훗날에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시련과 고통을 연대의 힘으로 이겨낸 나무들이 숲과 들판에 우뚝 설 것이란 낙관적 희망의 메시지는 나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주제] 작은 존재들의 연대에 대한 낙관적 믿음

(다) 안조원, '만언사'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작가가 추자도로 유배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유배지인 추자도에 이르는 노정과 그 노정에서 느낀 바를 표현하고 있다. 유배지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는 내용이 사실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김진형의 '북천가'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유배가사이다.

[주제] 유배생활의 어려움과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

28.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시적 화자가 꽃에게 말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화자는 꽃에게 문을 열라고 말한다. (나) 역시 화자는 나무에게 말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작은 손, 흐느낌, 아프고 서러워' 등의 표현에서 의인화된 나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에서 낚시를 하던 화자는 낚시대 그림자에 놀라 날아가는 백구에게 내 마음을 왜 몰라 주냐 하며 가지 말라고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다)에서 산천을 '홍일'로, 만경창파를 '금빛'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다)는 가사의 4음보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④ (나)에서 어둠과 밝음의 대비를 통해 나무들의 시련과 활짝 피어나는 날에 대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⑤ '유장한 어조'란 '급하지 않고 느릿느릿한 여유를 보여주는 어조'를 말한다. (다)에서 화자는 한가롭게 낚시를 하며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

29. 추론적 사고(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산새에 입맛을 잃었다고 했다.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은 꽃이요 꽃이 문을 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기에, 현실의 대상으로 열거된 '노래, 말, 산돼지, 산새'는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다. (다)에서 화자는 낚시를 하고 있지만, 낚시를 하는 목적이 '은린옥척'을 잡고자 함이 아니라 마음을 얻고자 함이라 했다. 그렇기에 은린옥척 역시 화자의 지향에서 벗어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가 머무는 장소는 꽃밭이다. ③ (가)에서 개벽은 화자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이다. (다)의 성세 또한 화자의 간절한 바람이기에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④,⑤ (가)에서 물뉘바닥에 열굴이나 비치는 아이는 현재의 화자로 비유되어 있다. 즉, 화자는 초월적, 절대적 세계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꽃이 문을 여는), 현재의 화자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화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 아니요, 만족하지 못하는 화자

자신의 처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의 ‘그림자’는 낯익은 그림자일 뿐이요, 백구를 깨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벗님’은 ‘백구’의 친구이기에 바로 화자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

30. 추론적 사고(시상 전개방식의 파악)

정답해설 : 설의적 표현이란 의문의 형식을 취하여 의미를 강조하는 수사법이다. (나)에서 1행과 2행은 ‘않으리’로 끝나고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두렵다, 무섭다’의 의미이며, 이를 시작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다)에서도 중간 부분 이후에 ‘내 마음 모름소냐’, ‘하물며 너 잡으랴’에서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어둠과 비바람의 계절을 이겨내고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는 계절을 맞이할 것이라는 내용에서 계절의 변화를 생각할 수는 있지만, (다)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③ (나)에서 화자가 일관되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상은 바로 ‘나무들’이다. ④ (다)는 낯시를 하며 느끼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기에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⑤ (나)와 (다) 모두 외부 세계보다는 화자의 내면 세계가 중심이 되고 있다.

31. 비판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감상)

정답해설 : ‘원주’에 따르면 (가) 시는 집을 떠나기 전 사소가 한 독백이다. ‘노래, 말, 산돼지, 산새들’에 흥미를 잃었다는 것은 사소가 자신을 둘러싼 현실, 당시까지의 삶에 흥미를 잃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심리는 사소가 새로운 세계를 찾아 떠나게 된 심리적 배경과 원인의 구실을 한다. 아울러 ‘꽃’은 새로운 세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②**

32. 추론적 사고(시적 화자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나무들의 연대에 대한 강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대한 믿음이다. 즉, 현재는 비록 ‘작은 손’으로 표현되었듯이 나약한 존재들이고, 어둠과 비바람에 시련을 겪을 것이지만 이러한 고통을 이겨낸 뒤에는 꽃과 열매가 이들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③,④ 시련을 극복한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극복할 것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33. 추론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다)는 낯시를 하며 한가로움을 느끼던 화자가 사랑하는 이에 대한 외로움과 그리움을 느끼는 내용이며, 글쓰이는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유배지에서 느끼는 적대자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평생의 곱던 임을 ~ 마음을 둘 데 없어’에서 화자의 외로움과 수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화자

는 낯시를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③ 백구가 내 가슴을 쪼아 헤치면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내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 했다. ⑤ 화자는 흥중에 붉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성은을 갚겠다고 했다.

2009.11 [28~33]
'님의 침묵, 나뭇잎 하나, 춘면곡'

(가) 한용운, ‘님의 침묵’

작품해설 : 이 시는 임이 떠나 버린 슬픔을 누군가에게 호소하는 듯한, 또는 혼자서 독백을 하는 듯한 형식으로 되어 있다. 임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경어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내용을 더욱 호소력 있게 전달한다. 이 시는 임이 떠난 것을 자각하면서 시작된다. 1~4행에서 임과의 이별은 화자에게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5~6행에서 그 슬픔이 드러난다. 하지만 7~8행에서 슬픔이 희망으로 역전된다. 그리고 마지막 9~10행에서는 슬픔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님의 침묵’에 대한 화자의 태도이다. 화자는 임이 떠나가 버렸고 현재 침묵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 속에는 임이 생생히 살아 있기 때문에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생각은 윤희 사상이라는 불교적 사유에 바탕을 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조국 상실의 시대적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한다.

[주제] 이별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의 다짐

(나) 김광규, ‘나뭇잎 하나’

작품해설 : 이 시는 겨울이 되어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를 보면서 발견한 소멸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이 시에서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자연물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1~2연에서 언젠가는 소멸하고 마는 자연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제시한 후, 3연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모습에 주목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4연에서 저마다 생성되었다가 끝내 소멸해 버리고 마는 나뭇잎을 보면서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함께 자신도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안타까움

(다) 작자미상, ‘춘면곡(春眠曲)’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남녀 간에 서로 그리워하는 마음, 즉 상사(相思)의 정(情)을 노래한 평민가사이다. 한 서생(書生)이 봄날 야유원(野遊園)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나 춘흥(春興)을 나눈 후 이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이별로 인한 한(恨)과 원망의 감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겨

우 잠이 들어 꿈에나마 임과 재회하여 즐거웠지만, 꿈에서 깨자 다시 임에 대한 그리움에 빠져 이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별한 여인의 심정을 다른 다른 시가들과 달리 남자가 겪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주제] 임과 이별한 괴로움을 잊으려 애쓰는 한 남자의 심정, 임에 대한 상사(相思)의 정(情)

28. 비판적 사고(작품들 간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의 전반부에서 화자는 ‘굳고 빛나던 옛 맹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 등 과거에 임과 함께 했던 추억을 환기하며 임과의 이별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신록이 우거졌을 때’, ‘낙엽이 지던 때’ 등 과거에 미처 대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환기하며 존재의 소멸에서 오는 상실감과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 화자는 과거에 임과 만나 사랑하던 때를 떠올리며 임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다)의 화자는 모두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는 자연의 변화를 표현하지 않았고, (다)는 자연의 변화가 표현되긴 했지만 그것이 화자의 미래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가)~(다)에는 시적 대상을 예찬하는 작품이 없다. ④ (가), (다)에는 관조적인 자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고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는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고 볼 수 없다.

29. 추론적 사고(시구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은 슬픔이 희망으로 역전되는 부분이다.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라는 표현에는 임과 이별한 슬픔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되어 있다. 반면에 ㉡은 마지막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것을 화자가 문득 인식하는 순간을 묘사한 것으로서 화자의 인식만 드러날 뿐, 화자의 의지는 투영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 ㉡ 모두 시상이 확산된다고 보기 어렵다. ② ㉠, ㉢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은근히 드러나고 있다. ④ ㉢은 역동적인 느낌이 희박하고, 오히려 ㉠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⑤ ㉠은 사실의 기술이 아니고 화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은 사실과 관념이 뒤섞인 표현이다.

30. 비판적 사고(역어 읽기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의 ‘차디찬 티끌’은 임이 떠난 충격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임과의 인연이 허무하게 깨진 것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가)의 화자가 이별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임이 떠났다고 해도 임과의 인연이 깨진 것은 아니다. (나)의 ‘새벽 서리’는 임

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자연물이므로 허무하게 깨진 인연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첫 번째 ‘아아’는 임이 떠난 것(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심정을 담고 있으며, (나)의 두 번째 ‘어화’도 임이 곁에 없는 상황(부정적 상황)에 대한 비탄의 심정을 담고 있다.

31. 비판적 사고(다른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보면 한용운의 「반비레」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이 침묵이라는 부재의 상태에서 ‘님’의 실재를 본 것이라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고, 「나의 노래」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이 화자가 자신의 노래에 ‘님’과 근원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에서 ‘사랑의 노래’가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돈다는 것은 화자가 부재 속에 실재하는 ‘님’을 만나 깊이 교감(소통)한다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시상의 흐름으로 볼 때, 화자는 ‘님’이 침묵하는 상황을 의지적으로 극복해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에서 ‘나의 노래’가 ‘산과 들을 지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님에게 들리는’ 것이 초점이므로, ‘산과 들을 지나서’라는 표현만 보고 자연 친화적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가)에서 사랑은 이미 시작되었고, 임이 떠난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침묵이 끝나야 사랑이 비로소 시작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에서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도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노래가 아니라 화자의 노래이다.

32. 비판적 사고(감상 내용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시는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는 존재의 고뇌를 노래한 시가 아니다. 따라서 4연에서 세상과 화합할 수 없는 존재의 고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마다 한 개씩’이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자 한 것은, 생성한 것은 반드시 소멸하고 마는 자연의 원리를 깨닫게 된 화자의 상실감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 2연에서 ‘~가(이) 온통 ~ 때 그곳을 ~면서 나는 ~었다’는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과거에는 대상의 모습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화자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② ‘골짜기(1연)’→‘길(2연)’→‘대추나무(3연)’→‘나뭇잎 하나(3연)’로 대상이 바뀌면서, 대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화자가 대상과의 거리를 점점 좁히면서 대상에 가까워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그러니까’, ‘문득’, ‘마침내’라는 부사는 화자의 인식의 순간을 강조하는 부사로서 독자로 하여금 화자의 인식에 주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⑤ 저마다 한 개씩 돌아났다(생성) 마침내 저마다 한 개씩 떨어지는(소멸) 나뭇잎의 변화 과정을 바라보면서 화자는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다.

33. 비판적 사고(다른 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A]에서 ‘조각달’이나 ‘잘새’는 ‘오동’, ‘제비’, ‘나비’와 마찬가지로 자연물로 변해서라도 헤어짐 임과 만나고 싶은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므로, ‘님’과 함께 크고 넓은 세계로 도약하려는 화자의 희망과는 거리가 멀다. **[정답] ④**

2010.06 [31~35]
'관동록, 관동별곡, 안민영'

(가) 흥인우, '관동록'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작가가 금강산을 다녀온 후 그 감상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기행문답게 여정과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나 있는데, 특히 금강산의 영랑재에서 바라본 다양한 형상의 봉우리와 바위들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와 비유가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비로봉에 오르는 과정에서 바라본 풍경들, 그리고 비로봉에서 바라본 풍경 및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주제] 금강산 봉우리들의 풍경에 대한 예찬

(나) 정철, '관동별곡'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송강 정철의 대표적인 가사 작품으로 작가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며 금강산과 동해 일대의 관동팔경을 유람하고 쓴 기행 가사이다. 우리말의 묘미가 잘 드러나 있으며, 다양한 수사법을 통해 작가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 제시된 지문에는 금강산 비로봉에 오르는 과정에서 바라본 다양한 봉우리와 풍경들이 다양한 비유적 표현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주제]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에 대한 예찬

(다) 안민영, 평시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금강산의 겨울 풍경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담아낸 시조이다. 화자는 금강 일만 이천 봉을 ‘눈’과 ‘옥’으로 표현했기에 겨울의 풍경임을 알 수 있고, 혈성루에서 바라본 풍경은 글로도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했다.

[주제] 금강산의 겨울 풍경에 대한 예찬

31.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감각적인 언어란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청각 등의 심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표현을 말한다. (가)에서는 특히 천봉만학의 형상을 다양한 비유로 시각화시켰으며, ‘해송과 측백나무’ 또한 ‘질고 열은 푸른 빛’으로 표현하는 등 시각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나) 역시 금강산에서 바라본 풍경들을 표현하다 보니 시각적 표현이 곳곳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금강산이라는 대상

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와 (나)는 모두 금강산 비로봉에 이르는 여행 도중의 감상을 표현하고 있다. ③ (가)의 마지막 부분에서 작가의 질문을 통해 금강산에 대한 관심을 확대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다)에서는 작가가 의문을 드러내는 표현이 드러나지 않았다. ④ (나)에서는 ‘또 있는가’, ‘괴뉘시고’, ‘고이힐가’ 등 단정적이기보다 의문형의 어조가 자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다)에서는 ‘옥이로다’, ‘되었어라’, ‘금강인가 하노라’의 단정적인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나)에는 금강산에 대한 작가의 다양한 관점이 잘 드러나 있다. ‘조화옹’의 솜씨가 드러난 것으로 금강산을 바라보기도 하며, 인간 세상에서의 임금과 신하 사이의 모습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다)는 짧은 시조의 형식이다 보니 금강산이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32. 추론적 사고(표현 대상의 파악)

정답해설 : @의 비유는 작가가 해송과 측백나무가 펼쳐진 위로 걸어가며 느낀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기에 비유적 표현의 대상은 해송과 측백나무 위의 길이다. 반면에 나머지는 모두 금강산의 ‘천봉만학’의 다양한 형상들이 펼쳐진 풍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정답] ④**

33. 추론적 사고(내용의 추리 상상)

정답해설 : 작가는 ‘진혈대’에 올라 그 아래 펼쳐진 봉우리들을 구경하며 풍경에 감탄하고 있다.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기에 마치 ‘여산’의 진면목을 본 듯하다고 한 것이다. 즉, ‘여산’은 화자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풍경이 아니라 금강산의 풍경을 빗대어 강조하기 위해 표현한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영랑재에서 바라본 기괴한 형상들이 다양한 비유로 표현된 것을 보면 작가에게 이 풍경이 인상적이었다는 것이다. ② 해송과 측백나무가 바람을 싫어하여 줄기가 한쪽으로 쓸렸다고 했다. ④ 작가는 개심대에서 중향성을 바라보며 기운을 느끼고 그 기운으로 인걸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⑤ 혈성루에 올라가니 천상인이 되었다고 했는데 ‘천상인’을 ‘신선’으로 해석할 수 있다.

34. 비판적 사고(서술자의 특성 파악)

정답해설 : [A]와 [B] 모두에서 작가가 현실에서 부딪힌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았다. [A]에서 작가는 오히려 자연 속에서 새로운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작가가 승려 성정에게 질문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비로봉을 바라보며 작가는 동산, 태산에 올라 노국과 천하를 좁다고 했던 공자의 호연지기를 떠

올리고 있다. ④ [A]에서 비로봉에 오른 작가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다고 했으며 ‘나는 새라도 내 위로는 솟구치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B]에서 작가는 공자의 높은 덕을 흠모하며 비로봉에 오르지 않고 내려가는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⑤ [A]의 ‘산천의 구분과 경계를 하나 하나 가리킬 수 있겠습니까?’란 작가의 질문에서 알 수 있다. 또한 [B]에서 작가는 자신은 노국 좁은 줄도 모르는데 천하를 좁다고 한 공자의 호연지기에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35. 추론적 사고(운율의 원리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보기>에서 설명한 전봇대의 간격은 운율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든 것이다. ㉠에서의 ‘원래의 간격’이란 규칙적으로 반복되던 리듬감을 말한다. 이를 시조 읽기에 적용한다면 ‘일정한 간격’이란 ①과 같이 한 호흡에 4글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것을 말하며, 전봇대 하나가 안 보이는 허전한 느낌이 드는 상황은 바로 3글자로 표현된 ②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전봇대가 촘촘히 나타나서 급한 느낌이 드는 상황은 ④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기에 이렇다가 다시 원래의 간격인 4글자를 회복하여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은 바로 ⑤라 할 수 있다. **[정답] ⑤**

2010.11 [32~37]
 ‘승무, 지리산 뻐꾹새, 면앙정가’

(가) 조지훈, ‘승무’

작품해설 : 이 시는 승무라는 불교적 춤을 소재로 하고 있다. 화자는 승무를 추는 고운 얼굴의 여승은 아무 말 없이 때로는 정적으로 때로는 동적으로 춤을 출 뿐이다. 그러나 화자는 그런 여승에게서 인간사 번뇌를 종교적으로 승화하려는 의지를 읽어낸다. 승무라는 고전적인 춤을 소재로 한 국적인 정조, 세상사의 번뇌를 이겨내려는 인간 보편의 염원을 그려낸 작품이다.

[주제] 세속적 번뇌의 종교적 승화

(나) 송수권, ‘지리산 뻐꾹새’

작품해설 : 이 시에서 화자는 지리산 뻐꾹새 울음 소리에서 느끼는 설움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저 먼 지리산의 한 곳에서 뻐꾹새가 울음을 토해내면 그 울음이 봉우리를 울리고 넘어와 섬진강으로 이어지고 그 섬진강은 다시 남해 군도의 여러 섬을 밀어올리며, 그 울음이 지리산 정상 세석의 철쭉꽃밭으로도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산에서 강, 바다로 이어지는 거대한 산하가 설움으로 그득하다는 것을 화자는 자신도 설움에 잠기면서 깨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

[주제] 지리산의 뻐꾹새 소리에서 깨달게 되는 설움의 정

서

(다) 송순, ‘면앙정가’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송순이 41세로 관직에서 물러나 전라도 담양 제월봉 아래에 면앙정을 짓고 그 곳 주변의 풍경을 노래한 시이다. 이어서 화자는 면앙정의 지형적 위치를 제시한 다음, 면앙정 주변의 근경에서 산봉우리의 원경을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이렇게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후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다. 즉, 세속의 번잡한 일을 잊고 대자연에서 한가로이 지내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다.

[주제] 대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와 그 속에서의 풍류

32. 비판적 사고(작품의 공통점 파악)

정답해설 : (가)는 춤을 묘사한 시이다.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이나 서서히 움직이는 동작, 멈춘 동작까지 모두 묘사되어 있다. 특히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 보선이여’에서는 오이씨와 같은 버선을 신은 발이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춤사위를 표현하고 있다.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뻗는 손’에서 손의 동적인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뻐꾸기 울음’이라는 청각적인 이미지이다. 2연에서 ‘실제의 뻐꾹새가 / 한 울음을 토해 내면 / 뒷산 봉우리 받아넘기고 /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부분은 뻐꾸기 울음소리가 봉우리를 넘고 넘어가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는 면앙정 주변의 모습을 여러 비유법을 사용하여, 마치 ‘용이 일어서는 듯’, ‘학이 두 날개를 벌리는 듯’, ‘하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등과 같이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세 작품에서는 시각, 청각 등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운동감을 효과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 (나), (다)에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지 않다. ⑤ (가)의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에만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고, (나)와 (다)에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33. 추론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이해)

정답해설 : (가)의 ‘흐르는 빛’은 (여인의 얼굴이) ‘정작으로 고와서’ 화자의 마음을 서럽게 하는 빛이다. 그 고운 얼굴빛은 승무를 처음 발견한 화자가 그 자리에 서서 춤을 끝까지 보도록 붙잡아 두는 힘이기도 하다. ②에서는 ‘흐르는 빛’을 여인의 얼굴에서 화자가 발견하는 빛으로 보지 않고, 여러 빛들에 의한 조명 효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여승이 춤을 추는 배경이 달이 지는 ‘밤’이기 때문에, 이를 바라보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다른 정경들이 어둠 속에 묻히고 무녀(舞女)인 여승이 부각된다. ④ (가)에서 ‘하늘’은 지상의 세계와 대비적인 의미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지상은 인간이 번뇌를 느끼는 곳이며, 세속에 지친 인간은 ‘하늘’, 그리고 하늘의 ‘별빛’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별’은 인간의 모든 번뇌를 초월하게 하는 해탈의 공간을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여승이 까만 눈동자를 들어 ‘한 개의 별빛’을 향한다는 것은,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가고자 하는 여승의 염원을 담은 것이다. ⑤ 6연에서 ‘눈동자 살포시 들어 ~ 별빛에 모두오고’라는 구절이 7연의 ‘눈물’, ‘번뇌는 별빛이라’와 이어진다는 점에서 ‘별빛’이 무녀의 눈과 연결되고, 이는 다시 그녀가 지향하는 세계와 내면세계를 이어준다고 할 수 있다.

34. 추론적 사고(시어의 의미 파악 및 비교)

정답해설 : (가)에서 여승의 총사위는 느리게 출발해서 점차 빨라지면서 다시 고요해지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화자는 여인에게서 세상사의 번뇌와 설움을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귀뚜라미 지새우는 삼경’에 나비와 같은 춤이 이어진다고 하여 시상을 종결한 것은 여승의 설움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자 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에서 화자는 ‘설움’이 지리산에 숨어사는 한 마리 뽕새의 울음임을 깨달았고, 그 울음이 지리산 전체를 울게 만들었으며, 그 울음에서 발원(發源)한 한줄기 강이 멀리 남해 바다로 흘러들어 무수한 섬을 생기게 했음을 깨닫는다. 또한 그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서 지리산의 세석 철쭉꽃밭을 다 태우는 것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마지막 연의 ‘세석의 철쭉꽃밭’은 이승의 맨 마지막 빛깔로서 앞 연에서 서술된 설움을 환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④ (가)의 설움은 여승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나)의 설움은 외부적 대상인 ‘뽕새’에서 비롯되고 있다.

35. 추론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2연에서 지리산 아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의 뽕새가 한 울음을 토해 내면, 뒷산 봉우리가 그 소리를 받아 넘기고 그 소리가 뒷산 봉우리를 넘어 울려 퍼진다. 그리고 또 뒷산 봉우리가 받아 넘긴다. 이는 한 마리의 뽕새 울음이 차츰 다른 뽕새로 이어지는, 즉 공동체의 공간으로 확산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의 뽕새’는 ‘여러 마리의 뽕새’와 다르지 않은 동질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화자가 울음의 주인공에 관한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를 ‘석 석 삼년’ 즉 이십 칠 년의 봄을 더 넘겨서이고, ‘길이 덜 뜯 설움에 맛이 들고’ 나서였음을 1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2~4연의 첫 행에 ‘지리산 하’, ‘지리산 중’, ‘섬진강’이라는 시적 공간을 배열하여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36. 추론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비교)

정답해설 : [A]는 지리산의 봉우리가 한 마리 뽕새의 울음소리를 받아넘긴다고 하여 자연물을 의인화한 표현이 쓰였으나, 직유법은 쓰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B]에서는 면앙정 앞의 시냇물을 ‘쌍룡(←쌍룡이 뒤흔는 듯)’과 ‘비단(←긴 김을 펼쳤는 듯)’에, 물가에 펼쳐진 모래밭은 ‘눈(←눈같이 퍼졌거든)’에 비유하는 과정에서 직유법이 쓰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B]에서 4음보의 정형적 음보율이 느껴진다.

37. 추론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의 관점을 토대로 (다)를 감상하는 문항이다. <보기>에서 ‘면앙정’은 작가가 천지만물의 이치를 심성의 수양으로 내면화하는 공간이라고 했다. 화자는 면앙정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물에 인간적 생명력과 의지를 부여하여 자신의 이상과 세계관을 표출하고 했다. ⑥의 ‘높은 용’은 제월봉의 형세를 표현한 것인데, 선장에서 막 깨어난 ‘높은 용’이 머리를 얹혀 놓은 듯한 형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용이 선장에서 막 깨어났다는 것은 이상을 펼치기에 늦었다고 여기는 작가의 조바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펼치고자 하는 작가의 내면이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무변대야’는 ‘끝없이 넓은 들판’으로 그런 곳에서 무슨 ‘짐작’을 한다는 것은 작가의 이상이 높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표현이다. ③ ‘두 날개를 벌리는 듯하다’는 표현은 비상(飛上)하려는 화자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추월산의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지는 듯 이어지는 듯’ 서 있다는 것에서, 높고 낮은 다양한 형세의 산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2015.11B [31~34]
‘관동별곡, 유한라산기’

(가) 정철, ‘관동별곡’

작품해설 : (가)는 정철이 45세가 되던 선조 13년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받아,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한 내용을 노래한 기행 가사이다. ‘서사-본사-결사’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며 관찰사로서 선정에 대한 포부와 연군지정(戀君之情)과 같은 위정자로서의 사회적 자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동시에 자연에 동화되어 신선이 되고픈 개인적인 자아의 욕망, 그리고 두 자아 사이의 갈등과 해소 과정이 잘 드러나 있다. 표현의 측면에서는 역동적이면서 생동감 넘치는 풍경 묘사와 아름다운 순우리말 표현, 속도감 있는 내용 전개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과 풍류

(나) 최익현, '유한라산기'

(나)는 조선 말기에 최익현(崔益鉉)이 지은 한라산 기행문으로 『면암집』에 수록되어 있다. 한라산을 등정하게 된 경위를 시작으로 하여 등반 과정, 백록담의 풍경, 정상에서의 감회, 한라산의 주변 풍경 등에 대해 묘사한 후 한라산의 형세와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글을 쓰게 된 동기 등에 대해서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사실적인 묘사와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이다.

[주제] 한라산의 수려한 풍경과 진면목

31. 시구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는 모두 여정에 해당한다. ㉔에서 화자는 자신이 지나온 곳을 간단히 나열하는 한편 서술어는 '너머 디어'로 최소화하여 여정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㉑은 '노국이 좁은 것도 우리는 모르는데'라는 의미로 성현(공자)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넙거나 넙은 천하'를 작다고 했던 공자의 기개와 높은 경지를 떠올리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 ② ㉒의 '더 디워'는 천하를 작다고 했던 성현(공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㉒에는 화자가 헤아릴 수 없는, 성현의 높은 기개와 정신적인 경지에 대한 경외감이 드러나 있다. ③ ㉓의 '삼일우'는 '음애(陰崖)에 이온 풀'을 살려낼 수 있는 소재로서 죽어가는 대상에게 생명력을 부여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음애(陰崖)에 이온 풀'이 백성(민초)을 상징한다고 본다면 ㉓은 선정을 베풀고자 하는 화자의 정치적인 소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⑤ ㉔의 '남여(藍輿)'는 '의자와 비슷하고 뚜껑이 없는 작은 가마'를 의미하고 '완보(緩步)'는 '느린 걸음'을 뜻하므로 '이동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묘사하여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2.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일행이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내려온 내용과 하인들이 식사 준비를 완료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나 '등정 과정에서 있었던 일행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의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와 '성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등의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주위가 1리 남짓하고~얼음이었다.'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 등에서 작가의 소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세 명뿐이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마지막 문단의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되돌아오니'와 같은 간략한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3.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B]에서는 '아래로는 세상을 굽어보며, 좌로는 부상을 돌아보고', '남으로는 소주와 항주를 가리키고 북으로는 내륙을 끌어당기고 있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자연물인 '최고봉'을 의인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보기>에서는 '노흔 고래', '은산을 것거 내여 육합의 느리는 듯', '오월 장천의 백설' 등을 통하여 '망양정'에서 바라본 물결과 파도의 움직임은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와 <보기> 모두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자연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은하수'는 '은하'를 강에 비유하여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A]에서는 폭포를 '은하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지상의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자연물인 물결과 파도의 모습을 '고래', '은산', '백설' 등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므로 '천문 현상을 지상의 자연물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B]에서는 '굽어보며', '돌아보고', '가리키고', '끌어당기고 있었다' 등의 표현을 통해 최고봉을 인격체처럼 표현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장관을 역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보기>는 대상에 대한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에 의하면 '와유'는 글을 통해 자연을 감상하는 간접 유람에 해당하고, '원유'는 실제 여행을 통해 자연을 즐기는 직접 유람에 해당한다. (가)의 '이적선이 이제 이셔 고택 의논하게 되면 / 여산이 여기도곤 단단 말 못허려니'라는 구절에서 화자는 '여산'을 직접 유람한 것이 아니라 이적선의 글을 통해 와유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는 '화룡소'를 직접 보고 느낀 감회를 서술하였으므로 '관동별곡'을 읽은 다른 이들에게 와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나)의 글쓰이는 2문단에서 직접 '백록담'과 주변을 관찰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원유를 통해 자연의 형세를 묘사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나)의 글쓰이는 4문단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최고봉의 모습을 서술한 후, 5문단에서 '『맹자』의 "바다를 본 자에게는 다른 물이 물로 보이지 않으며 태산에 오르면 천하가 작게 보인다."라는 말에 담긴 성현의 역량을 이로써 가히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유가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나)의 글쓰이는 5문단에서 '또 소동파에

게 당시에 이 산을~라는 시구가 적벽에서만 알맞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와유했던 적벽의 모습'과 '원유를 통해 확인한 한라산의 모습'을 비교하여 한라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6.09B [34~38]

'꽃뎀불, 사랑, 보리'

(가) 신석정, '꽃뎀불'

지문해설 : (가)는 해방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제 강점기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가졌던 삶의 다양한 태도와 모습을 성찰해 보고 있다. 이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세계를 이루고 싶은 기대와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일제 강점기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했으나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한 시대적 상황과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민족의 현실에 대한 시인의 고뇌가 잘 드러난다. 이 시의 제목인 '꽃뎀불'은 우리가 새롭게 수립해야 할 바람직한 민족 국가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더 나은 세계(완전한 독립 국가)를 이루고 싶은 기대와 희망

(나) 전봉건, '사랑'

(나)는 제목 '사랑'과 더불어 '사랑한다는 것은'을 첫 연과 마지막 연에 반복함으로써 이 시의 화자가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시인은 과목을 가꾸는 행위에 빗대어 사랑의 의미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사랑은 저절로 아름답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정성과 보살핌 그리고 사랑을 위협하는 것들과 맞서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연은 주로 사랑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고 3연은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고, 지켜보는 노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보살핌과 지켜봄의 의미를 통해 바라본 사랑

(다) 한혹구, '보리'

(다)는 보리를 '너'라고 부르면서 보리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고, 보리가 자라는 과정을 인간의 삶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추운 겨울과 싸우기 위해 땅 속에서 굶하지 않는 의지로 견뎌내던 보리가 따뜻한 봄이 오자 새로운 생명을 회복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리를 끈질긴 생명력의 표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글쓴이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시련을 통한 성숙의 의미를 드러냄과 동시에 성실한 농부의 삶과 노동의 가치를 함께 예찬하고 있다.

[주제] 보리의 강인한 생명력 예찬

34. 작품 간의 공통점

정답해설 : (가)의 '혈어진 성터', (나)의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 (다)의 '어둡고 차디찬 눈 밑' 등의 표현은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화자의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다) 모두 화자가 기대하는 상황과 그 이전 상황의 대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② 색채어가 일부 사용되고 있으나 새롭게 나타난 것들이라고 볼 만한 대상이 없다. ④ 자연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서로 대립하던 대상들이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에서 '겨울밤', '차거니'는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아직도'는 이러한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화자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항상'은 '거룩한 이야기'를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② '드디어'는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이 비로소 지나갔음을 의미한다. ④ '아무리'는 적대적인 것들이 화자의 사랑을 위협해도 이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부각하는 것에 가깝다. ⑤ '이미'에는 겨울을 이겨내는 보리의 생명력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태도가 담겨 있다.

3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이해

정답해설 : (가)의 '몸'과 '맘'을 팔아버린 벗들은 자신의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들의 삶은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고 보는 것이 적절하며, 위협적인 대상에게서 사랑을 지켜내지 못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혈어진 성터'는 사랑하는 대상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는데,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③ '해충'은 과목을 해치는 존재이므로 위협에 맞서려는 노력에 해당한다. ④ '밤'은 부정적 상황이므로 '밤을 새워서 지키는 일'은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꽃뎀불'과 '새 과목'은 모두 화자가 바라는 긍정적 상황이므로 사랑의 결실에 해당한다.

37.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사랑의 의미'라는 (나)의 주제로 볼 때 ㉠은 1행으로 이루어져 1연을 이루고 있으므로 시상 전개 단서로 기능하고 있고, 첫 연과 끝 연에서 반복되고 있으므로 그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다룬 내용을 찾기 어렵다. ③ ㉡에서 경외감은 드러나지 않

고, ㉑는 비교를 통해 비장감을 자아내고 있지 않다. ㉒와 ㉓ 모두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하고 있지 않다. ㉔와 ㉕ 모두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과 무관하다.

3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이해

정답해설 : ‘봄의 춤’으로 표현된 보리의 모습은 ‘은 누리’에 보리의 푸른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㉑ 추위를 견디는 모습은 인내심과 연결하여 감상할 수 있다. ㉒ 보리가 성장하는 모습이므로 보리의 강인한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㉓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잃지 않는 보리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㉕ 노고지리들이 보리에 보금자리를 틀어 놓는 것과 연결되므로 보리와 다른 자연물들의 조화를 엿볼 수 있다.

2017.09 [40~45]

'김현감호, 이생규장전'

(나) 작자 미상, '김현감호'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신라 때 처녀로 변신한 호랑이가 김현과 부부의 인연을 맺은 뒤 그를 위해 죽음을 택했다는 설화로서 『삼국유사』에 실려 전해진다. 밤늦은 때까지 절에서 탑돌이를 하던 김현은 한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누다. 여인을 따라 그녀의 집에 간 김현은 이 여인이 호랑이가 변신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데, 여인의 세 오빠가 악행이 심해 하늘이 재앙을 내리려 하자 여인은 김현의 손에 죽을 것을 결심한다. 그렇게 하여 여인은 자결하고 김현은 호랑이를 잡은 공로로 벼슬에 오르게 된다.

[주제]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

(다) 김시습, '이생규장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이승과 저승의 한계를 뛰어넘어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 전반부에서 보여 준 이승과 최낭의 자유연애에 의한 사랑은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관습을 과감히 깨뜨리고 사랑을 실현한 사건은 작가의 애정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흥건의 난으로 깨어지고 마는데, 두 사람의 사랑은 최낭의 환생이라는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 다시 이루어진다. 이는 비극적 현실을 환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40.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

정답해설 : (가)의 1문단에서 우리의 전기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에서 비롯하였으며, 작가의 분신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전기

소설의 남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답]** ㉑

[오답피하기] ㉒ (가)의 1문단에서 중국의 전기는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 양식인데,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㉓ (가)의 1문단에서 전기는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하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전기소설은 비극적 종결을 맞이하는 전형성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㉔ (가)의 1문단에서 중국의 전기는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 글 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㉕ 1문단에서 우리의 전기소설은 중국 전기의 영향을 받아 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결을 통해 전기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4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다)에서 이생은 최낭에게 황천에 함께 가거나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세상을 떠나자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최낭은 자신의 이름이 저승의 명부에 올라 있으며, 자신이 인간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그 죄가 이생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라져 자취를 감추고 있다. (가)의 3문단에서 전기소설의 인물은 구체적인 사회 현실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는 관계로 다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에서 최낭의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다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비극적 결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다)에서 현실의 문제가 서로 대등하게 맞서는 개인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㉑

[오답피하기] ㉒ (나)의 김현은 배필의 죽음을 결국 막지 못하고, 범을 잡아 벼슬에 등용된다. (가)의 2문단에서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소심하고 나약한 존재로서 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모순된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의 김현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소극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㉓ (나)의 범은 자신의 죽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이 다섯 가지라고 하면서 자신이 죽은 후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불법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가)의 3문단에서, 전설에서 인물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나)의 김현과 범의 갈등 해결은 불교라는 종교적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㉔ (다)의 이생은 최낭이 환신해 돌아오자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낭과 함께 살면서 세상사를 완전히 잊은 채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의 2문단에서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등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폐쇄성을 통해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보여 줄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 이생은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폐쇄성’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횡액을 당해 죽은 (다)의 최낭은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어 원통해 하다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와 이생과 남은 인연을 맺으려 하고 있다. (가)의 2문단에서 전기소설의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이거나 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존재이며, 외로운 주인공은 현실에서의 소외를 부당하다고 느껴 온갖 금기를 넘어서 사랑을 하거나 용궁과 같은 이계(異界)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의 최낭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외로움’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42. 작품 간의 비교 감상

정답해설 : (나)의 남주인공인 김현은 여주인공인 처녀(범)가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울면서 처녀와 헤어지고 있다. 그리고 [A]에서 남주인공인 이생은 여주인공인 최낭에게 황천에 함께 가거나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세상을 떠나자고 하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의 여주인공인 처녀(범)는 자신이 죽으면 다섯 이로우미 갖춰진다고 하면서 김현에게 자신의 죽음이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A]의 여주인공인 최낭은 자신은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하면서 만일 자신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된다고 말하면서 남주인공인 이생을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A]의 여주인공이 자신의 죽음이 저승의 법을 어긴 대가라며 남주인공을 설득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나)의 여주인공인 처녀(범)는 남주인공인 김현에게 불법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힌 한을 풀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처녀(범)는 자신의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김현에게 알려 주고 있다. 한편 [A]의 여주인공인 최낭은 아무 곳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유골을 거두어 달라며 이생에게 부탁을 하고 있으나, 이를 생전에 자신에게 맺힌 한을 풀어 달라는 부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④ (나)에서 여주인공은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불법(佛法)을 얻도록 도와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남주인공인 김현은 범을 죽이고, 그 공로로 벼슬에 올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난 후에 서천(西川)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願寺)라고 하고 항상 『범망경』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함으로써 범이제 몸을 죽여 자기를 성공시켜 준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A]의 남주인공인 이생은 아내인 최낭이 말한 대로 그녀의 시신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묻어 준 후에 병을 얻

어 두어 달 만에 세상을 떠난다. 따라서 [A]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해소한다고 볼 수 없다. ⑤ (나)의 남주인공인 김현은 범을 잡은 공로로 벼슬에 올랐으므로 세속적 삶에 회의를 느끼며 속세를 등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A]의 남주인공인 이생은 최낭을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어 달 만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세속적 삶의 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할 수 있다.

43.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3문단에서 ‘김현감호’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 김현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처녀(범)가 자신의 죽음을 ‘낭군의 경사’라고 말하는 장면은 벼슬을 얻고자 하는 김현의 개인적 욕망에 대한 부처의 응답을 범의 희생으로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나)에서 ‘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해치는 장면은 김현이 벼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은 김현 개인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주는 서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김현은 처녀(범)와의 대화를 통해 이미 처녀(범)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김현이 임금에게 범을 ‘잡을 수 있’다고 아뢰는 장면에서 김현은 임금에게서 벼슬을 얻고 있으므로 이 장면은 김현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서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임금은 범을 잡기 위해 김현에게 ‘벼슬을 주어’ 격려하고 있다. ㉠에 따르면, 이는 김현의 개인적 욕망이 성취되는 서사일 뿐 부처의 전능함을 실현하려는 임금 개인의 의지로 보기 어렵다. ⑤ (나)에서 범이 김현 앞에서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는 장면은 범이 희생을 감행하기 직전의 일이다. 범의 희생에 대한 김현과 처녀(범)의 갈등이 이미 해소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 장면이 부처가 김현과 처녀(범)의 만남에 감동하는 계기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개인적 욕망이 실현되는 서사의 일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환신으로 이승에 돌아와 이생과 산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최낭은 ‘세 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라고 하면 이생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황천으로 가서 살거나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세상을 떠나자는 이생을 만류하고 나서 점점 사라져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따라서 ‘세 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라는 구절이 현세에서 좌절된 사랑을 저승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여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생과 결혼한 최낭은 행복하게 살다가 '황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황액'은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을, '구렁'은 '빠지면 헤어내기 어려운 환경'을 의미하므로 이생과 최낭의 사랑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좌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최낭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이생과 헤어지게 된 자신의 처지를 '짙은 새'에 빗대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랑을 잃은 최낭의 슬픔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③ 환신으로 이승에 돌아온 최낭이 이생에게 옛날의 '굳은 맹세'를 지키자고 제안하자 이생은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라며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랑을 지속하고자 하는 두 남녀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 수 있다. ⑤ 최낭은 만일 자신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 될 뿐 아니라 죄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이생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이는 이생의 안위를 걱정하는 최낭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5.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다)에서 이생이 '가산을 묻어 둔 곳'을 찾아가 금은과 재물을 가져오는 사건은 이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 장면이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다)에서 황액을 만나 죽은 최낭은 '환신'으로 이승에 돌아와 이생에게 '남은 인연'을 맺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최낭은 능동적인 여인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최낭은 이미 죽었으나 '환신'으로 이생과 만나 사랑을 나누고 '기쁜 정'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산 자(이생)와 죽은 자(최낭)가 만나 사랑을 나눈다는 설정은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의 구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다)에서 최낭은 저승의 명부에 올라 있으나 '환신'으로 이승에 돌아와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최낭은 저승과 이승을 넘나드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는 저승과 이승이라는 이원적 공간 구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다)에서 이생은 세상사에 관심을 끊고 집에서 늘 최낭과 함께 '시를 지어 주고 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는 시가 애정 교류의 매개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017.11 [21~26]

'박씨전, 시장과 전장'

(나) 작자미상, '박씨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여 허구적 인물인 박씨 부인이 청나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영웅적 활약을 그리고 있다. 박씨 부인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만

들어 놓은 피화당이라는 공간을 침입한 청나라의 군대를 영웅적 활약을 통해 무찌른다. 이를 통해 전쟁에서의 처참한 패배와 굴욕적인 화친으로 인해 손상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극복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오랑캐군을 무찌르는 박씨 부인의 영웅적 활약

(다) 박경리, '시장과 전장'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미친 상흔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제시된 장면에서는 중공군과 인민군이 서울에서 후퇴하면서 남긴 곡식을 서로 퍼 담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 생존하는 것조차 힘든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한 곡식을 담다가 총에 맞아 죽는 윤씨의 모습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주제] 전쟁의 비극과 폭력성, 그로 인한 우리 민족의 수난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윤씨는 중공군과 인민군이 남기고 간 쌀을 얻으려 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 지영은 죽은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올라 집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윤씨와 지영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 구도를 형성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박씨전'은 실재했던 전쟁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병자호란 때 조선은 청나라에게 굴욕적으로 항복했지만 소설 '박씨전'에서는 박씨와 박씨의 명을 받은 계화의 활약을 통해 청나라 군대를 무릎 꿇게 한다. 이는 실재했던 전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욕망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여성 인물인 박씨와 박씨의 명을 받은 계화가 가해 세력으로 등장한 용골대 등의 무리와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시장과 전장'은 실재했던 전쟁인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전쟁의 상흔을 직시하려는 의지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⑤ '박씨전'에 등장하는 '용골대'는 실존 인물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군사를 이끌던 장군이었고, '시장과 전장'에 등장하는 '중공군' 역시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중공군을 말하는 것이므로 '용골대'와 '중공군'은 모두 실재했던 전쟁을 환기하고 있다.

22.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박씨전'에서 박씨가 청나라 군사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의식과는 관련이 없다. 이는 박씨를 너그럽고 관대한 인물로 설정하는 대신 청나라 군사들은 박씨의 자비를 입어 목

숨을 구하는 초라한 존재로 설정하여 민족적 자존심을 높 이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기>의 '임장 군전'에서 용골대가 승전비를 세우는 것은 자신의 전공을 자랑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므로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이 반영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계화와 박씨는 용골대를 꾸짖으며 굴복시 키는 인물로 등장한다. 여기에는 실재했던 전쟁에서 비참 하게 패배했던 치욕을 허구적 인물을 통해 심리적으로 보 상받으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다. 그러므로 계화와 박씨는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② <보기> 에서 서술자는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와 같이 말 하고 있는데, 이는 서술자가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는 것이 다. 이에는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 느끼는 연대감이 반영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박씨전'에서 용골대는 박씨 부 인을 무찌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인물로, ' 임장군전'에서 용골대는 조선을 침략하여 승리한 후 거만 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처럼 용골대를 부정 적인 모습으로 그린 것은 병자호란 당시 우리 민족이 겪었 던 패전의 고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박씨전' 과 '임장군전' 두 작품에서 모두 왕대비는 청나라에 볼모로 가지 않는다. 그런데 '박씨전'의 경우 '임장군전'과 달리 박 씨의 영웅적 활약에 의해 왕대비가 청나라에 볼모로 갈 위 형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받고 자 했던 백성들의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용골대는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 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었으니, 어찌 분한치 않으리오.”라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수하 장졸들의 죽음을 박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가득하고, 조선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끌려가는 장면은 전쟁으로 인한 조선 백성들의 비극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조 선의 도원수로 등장하는 인물인 김자점은 용골대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관군의 무능함을 나타낸 다고 볼 수 있다. ③ 박씨와 박씨의 명을 받은 계화의 활 약을 통해 소설의 독자들은 패전으로 인한 고통을 위로받 았다고 할 수 있다. ④ 은혜를 입은 나라를 침범하는 모습 으로 오랑캐군을 설정하여 오랑캐군이 은혜를 모르는 불의 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끓주린 이리떼’는 전쟁으로 인한 굶주림에 지 쳐 곡식을 보고 달려드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리고 곡식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끓주 린 이리떼’라 표현하고 있는 장면에서는 아직 윤씨가 총에 맞기 전이므로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로 변해 버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윤씨는 식량을 얻으려다가 총에 맞아 죽 는다. 이는 실제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과 그렇지 않은 후 방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② 갈가마귀떼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고, 악을 쓰 며 곡식을 퍼 담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쟁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조차 상실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윤씨 는 곡식을 퍼 담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 윤씨는 죽으 면서까지 쌀자루를 껴안고 있다. 윤씨의 피에 젖은 쌀자루 는 전쟁의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인물의 희생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⑤ 지영은 총에 맞아 죽은 윤씨를 업고 버 랑을 기어올라 집에 돌아온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로 버랑을 기어오르는 것은 전 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의 모습을 상징적 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김씨 부인은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애기를 어찌려고 그러는 거요.”라 말하면서 윤씨 를 찾아 강변으로 달려가는 지영을 만류하고 있다. 하지만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는 듯 달려가 강변에 도착하여 죽은 윤씨를 업고 집으로 돌아온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용골대는 처음에 화살로 공격을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화약 염초를 이용하여 화공을 쓰게 된 다. ② 박씨가 오랑캐군을 공격한 것은 왕대비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용골대가 “내 아우가 불행하여 네 손 에 죽었지만, 네 나라의 화친 언약을 받았으니”라고 말하 고 있으므로 박씨가 오랑캐군과 조선의 화친 언약을 몰랐 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윤씨가 김씨 덕 아주머니 와 함께 식량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 도교가 아니라 한강 모래밭이다. ⑤ 윤씨는 “피란 안 갔다 고 야단맞지 않을까요?”라 말하고 있으므로 윤씨는 피란을 간 것이 아니라 가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중략’ 이전에 한강 모래밭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 식량을 자루에도 담아내는 장면, 윤씨가 사람들을 따 라 곡식을 퍼 담다가 총에 맞는 장면, 그리고 ‘중략’ 이후 에 윤씨를 찾아 지영이 강변으로 달려가 죽은 윤씨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인물의 행위가 현재형 시제를 통해 연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의 긴박감이 잘 드러난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회상의 형식이 아니며, 인물 간의 갈등

역시 제시되고 있지 않다. ②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적 배경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지 않으며, 성격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 역시 제시되지 않는다. ③ 인물의 경험이 관념적으로 서술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윤씨의 죽음이라는 사건의 원인은 알 수 있지만 이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④ 윤씨와 김씨 덕 부인간의 대화가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날 뿐 과거로 돌아가려는 인물의 심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3. 현대소설

2008.06 [23~25]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제목처럼 어느 하루 동안에 벌어진 구보 씨의 일과를 서술한 박태원의 중편 소설로서 '집을 나섬→돌아다님→귀가'의 노정을 따르고 있다. 이 작품에서 '구보 씨'는 무기력한 한 지식인(소설가)의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전차 안→다방→거리→경성역 대합실→다방→거리→술집'으로 전전하며 그가 지켜본 일상의 풍경은 1930년대 조선의 세태를 잘 반영해 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태 묘사와 더불어 중간중간에 인물의 복잡한 내면 심리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잘 표출되어 나타난다. 이 작품에는 1930년대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통 사회의 따뜻한 인간미가 상실되어 가는 모습 및 그 속에서 도시인들이 느끼는 고독감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작품은 인물의 내면 의식이 두서 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이나 행위, 갈등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 또한 이 작품에 사용된 의식의 흐름이나 몽타주 기법 등의 모더니즘 소설 기법들은 연관성 없는 내면 의식을 보여주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여기 제시된 장면은 구보 씨가 다방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평소 왕래가 없던 중학교 동창 및 그의 동료를 만나 당시의 걸작이나 원고료 등 달갑지 않은 화제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주제] 1930년대 소설가의 눈에 비친 도시의 일상사

23.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은 구보 씨가 다방에서 벼를 기다리던 중에 평소 왕래가 없으면서도 아는 체를 하는 중학교 동창 및 그의 동료를 만나 썩 내키지 않는 화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문을 들어서서 벼와 함께 다방에서 벗어나는 장면이다. 여기 제시된 지문만 놓고 보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고 있지만, 주인공인 구보 씨의 내면 의식이 의식의 흐름에 따라 두서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인과성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이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 배열을 통해 사건의 인과성을 밝히

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은 '다방'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의 만남과 작가의 원고료에 대한 대화를 통해 세태를 암시하고 있다. ② 이 글의 서술부는 전반적으로 과거형 어미로 진술되고 있으나, 인물의 내면을 제시하는 문장만큼은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④ 이 글의 대화 부분은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이 뒤섞여 있는데, 이를 통해 등장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참, 최 군, 인사하지. 소설가 구보 씨.', '밖에, 여름 밤, 가벼운 바람이 상쾌하다.'처럼 심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읽기 속도에 변화를 줌으로써 그 부분에 주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4. 추론적 사고(인물의 심리적 태도 추론)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구보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 '사내'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합석하여 대화를 나눈다. 따라서 ㉠에 나타난 구보의 태도는 상대방처럼 되지 못하는 자신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작품을 남들에게 선전한다고 거들먹거리는 상대방을 자신의 독자 권유원으로 삼으면 몇 백 명의 독자를 획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난데없이 생각한 자신의 내면 의식에 대해 스스로 유치하다고 여기며 어이없게 웃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다방 안의 모든 사람의 시선을 온몸에 느낀다는 것은 창피스러움과 당혹스러움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고개를 돌렸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태도라 할 수 있다. ③ '게으르게나마'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행동하는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간신히'라는 부사로 볼 때, 구보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창의적 사고(시점을 바꿔 서술하기)

정답해설 : <보기>에 제시된 (가)와 (나)는 모두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하는 그림이므로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된 ①, ②는 제외하고 답을 골라야 한다. (가)의 시점은 전지적 서술자가 구보의 입장에서 '사내'의 심리를 추정하여 서술하는 시점이다. 반면 (나)의 시점은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알고 있는 전지적 서술자가 직접 '사내'의 심리와 '구보'의 심리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그 사내는 구보가 공손하게 말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특이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하여, 서술자가 관찰만 하고 있을 뿐 '사내'의 내면 심리를 모르고 있는 듯이 서술한 ③은 (나)의 시점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서술자가 '사내'와 '구보'의 내면 심리까지 꿰뚫어 보고 서술한 ④가 (나)의 시점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② 1인칭 시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3인칭 관찰자 시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특이감을 맛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추정함으로써 서술자가 '사내'의 심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서술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6. 추론적 사고(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이 글에서 '구보'는 원고료가 얼마나 되는지 묻는 '최 군'의 태도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있지만, '최 군'처럼 모든 것을 돈으로만 따지려 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려고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⑤는 이 글에 나타난 '구보'의 태도와 어울리지 않는 대화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 글에서 '사내'는 예술 작품 자체보다 그 작품을 쓴 작가와 자기와의 관계에 더 관심이 많은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화이다. ② 이 글에서 '최 군'은 당시에 큰 인기를 얻었던 장편 소설에 대해 걸작이라고 생각하며 구보의 동의를 구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대화이다. ③ 이 글에서 '구보'는 '최 군'이 말하는 작품들이 좋은 작품이라고 동의하지 않으면서 마지못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③처럼 말하는 것도 이 글에 나타난 '구보'의 태도와 어울리는 대화라 할 수 있다. ④ 이 글에서 '최 군'이 원고료에 관심을 드러내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므로 ④처럼 그림의 가격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글에 나타난 '최 군'의 태도와 어울리는 대화라 할 수 있다.

2008.09 [40~43]
'날개'

이상, '날개'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현대인의 도착된 삶과 자아 분열의 의식 속에서 내면에 대한 성찰을 그린 초현실주의적 경향의 심리 소설이다. 이 작품은 억압적인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지식인이 차츰 현실을 인식하고 억압적인 현실에서 탈출하여 자기 정체성을 되찾고자 하는 몸부림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나'는 매춘부인 아내에게 기생해 사는 무기력한 지식인으로, 일상적인 상식의 세계에서 벗어나 그날 그날을 맹목적으로 살아가다. 아내의 매음 현장은 그에게 금단의 공간이며, 아내의 매음 시간은 아내가 준 수면제에 의해 잠들어야 하는 시간이 된다. 여기에 제시된 부분은 이 작품의 결말 부분으로 '나'의 심리적 변화 과정이 나타난다. '나'는 '정오 사이렌'을 계기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이를 통해 '재생'의 욕망으로 불타게 된다. 여기서 '날개'는 억압된 세계, 전도된 질서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한다.

[주제] 무기력한 삶과 자아 분열 속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아를 찾으려는 의지

40.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

정답해설 : 이 소설은 객관적인 진술보다는 서술자인 '나'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며, 독백적 어조를 통해 현실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서술자의 내면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나'가 지닌 자의식의 혼란과 자아 분열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에서는 '피곤한 생활이 뚝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다.', '우리 부부는 숙명적으로 발이 맞지 않는 절름발이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네 활개를 펴고 닭처럼 푸드덕거리는 것 같고~'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생각과 인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회상의 기법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 현재와 과거의 화해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1.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추리)

정답해설 : 작품 속에서 특정 소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묻는 유형이다. 이 작품의 배경인 일제 강점기의 서울에서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은 매우 높은 곳이었기에 건물 주변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이 옥상에 올라와서 '나'는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면적 성찰을 한다. 또한 옥상에서 '회탁의 거리'를 조망하면서 '나'와 '회탁의 거리'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그 회탁의 거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고 표현한 것으로 볼 때, 옥상에서 바라본 '회탁의 거리'를 부자유와 체념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미쓰코시 옥상이 나오 하여금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인공인 서술자가 이전과는 다른 삶의 태도를 갖게 되는 계기는 '미쓰코시 옥상'이 아니라 '정오의 사이렌'이다. **[정답] ②**

42. 비판적 사고(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사건의 전반적인 흐름에 나타나는 '나'의 심리 변화에 주목해 볼 때, ㉠ 이후로 '나'의 심리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후 '나'는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가 담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의식의 전환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정오의 사이렌' 소리가 '나'의 생명력을 일깨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기>를 참조할 때 '정오'의 함축적 의미 때문에 ㉠을 경계로 어조와 분위기가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은 주인공의 의식의 전환을 보여줄 뿐, 자아의 문제에서 사회 문제로 시선을 전환하게 하고 있는 것이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⑤ <보기>에서 '정오'를 '각성과 재생의 시간'으로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이 작품을 읽을 때는 시간의 물리적인 의미보다 심리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어야 함

을 알 수 있다.

43. 추론적 사고(사건의 상징적 의미 이해)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나’가 아내 몰래 집에서 나온 것은 폐쇄적이고 무기력한 삶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몸부림일 뿐이므로, 이를 현대 문명의 구속에 맞서고자 하는 지식인의 적극적인 대결 의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아내’가 현대 문명을, ‘나’가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상징한다고 한 것으로 볼 때, 이 작품에서 ‘아내’가 ‘나’를 의심하면서 따지는 것을, 지식인의 내면 세계에 대한 현대 문명의 위협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이 작품에서 ‘나’는 ‘아내’를 완전히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보기>의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현대 문명과 결별하기 어려운 지식인의 의식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나’의 머릿속에서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가 번뜩인다고 한 것은, 사라졌던 ‘나’의 희망과 야심이 다시 살아남을 표현한 구절이므로,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 의식을 회복하고자 하는 지식인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9.06 [28~31]
'신열'

현길언, '신열(身熱)'

작품해설 : 한 신문사 기자의 눈을 빌려 역사의 왜곡 행위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음을 꼬집는 동시에 현재에도 우리가 어떤 진실을 가려내지 못하고 오히려 허위와 조작을 일삼고 있음을 비판한 소설이다. 이 작품 속의 ‘김만호 씨’는 일제 시대 친일 행위를 했지만 해방 이후에 출세한 인물로서 현재 ‘선구적인 시민상’ 수상을 앞두고 있다. 반면 ‘강 목사’는 일제 때 한글강습소를 운영하다가 김만호 씨에게 핍박을 받은 인물로 김만호 씨와 상반된 삶의 관점을 지녔던 인물이다. 지문에 제시된 대화로 미루어 볼 때 ‘재종숙’은 ‘강 목사’의 입장에서 서 있는 인물이고, ‘교장 어른’은 ‘김만호 씨’의 입장에서 서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의 관찰자이자 작품 속에서 기자 역할을 하는 ‘나’는 ‘선구적인 시민상’ 수상 논란의 당사자인 김만호 씨의 과거 행적에 대해 취재하면서 진실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지만 현실이 용납하지 않는 관계로 결국 좌절하고 만다.

[주제] 진실을 왜곡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

28.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제시된 지문에서는 ‘나’와 ‘재종숙’의 대화, ‘나’와 ‘교장 어른’의 대화를 통해 주로 ‘김만호 씨’와 ‘강 목사’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들이 일제 강점기 때 및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즉 대화를 통해

초점이 되는 두 인물의 성격과 그들의 상반된 삶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주제를 암시할 만한 상징적 소재를 찾을 수 없다. ③ 사물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④ 비유적인 언어를 부분적으로 구사하기는 했지만, 이를 통해 미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내적 독백을 연속적으로 서술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29. 추론적 사고(인물의 태도 및 입장 추론)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재종숙’은 ‘강 목사’의 입장에서 서 있어서 ‘김만호 씨’의 ‘선구적인 시민상’ 수상을 반대하고 있는 데 비해, ‘교장 어른’은 ‘김만호 씨’를 두둔하며 ‘재종숙’의 처사를 못마땅해 한다. ‘나’는 이 두 사람을 모두 만나 취재를 하면서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기에, ④ 처럼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김만호 씨’가 일제 시대에 면장으로 일하면서 친일 행위를 했으면서도 해방 이후에도 요란하게 행세를 했다고 한 데서, 그가 현실의 변화를 재빨리 수용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김만호’는 일제 시대에 관리로 일했고, ‘강 목사’는 한글강습소를 운영하다가 강제 폐쇄를 당했다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③ ‘교장 어른’이 ‘김만호’를 두둔하는 말을 하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⑤ ‘재종숙’이 ‘김만호’의 ‘선구적 시민상’ 수상을 반대하면서 나라를 팔아먹고 권력의 종노릇 한 사람이 그런 상을 받으면 모두들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언성을 높여 말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30. 추론적 사고(구절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추론)

정답해설 : ㉔을 예상 밖의 결과에 대해 실망하는 심리로 보기는 어렵다. 이 글의 중간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재종숙’과 헤어지고 나서 ‘교장 어른’을 만나러 오면서 ‘그에게서는 재종숙과는 정반대의 말을 들을 것이 뻔하다’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종숙’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김만호’를 두둔하는 ‘교장 어른’에게서 ‘김만호’의 새로운 면모를 찾지 못한 것은, 서술자가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이며 특별히 실망할 만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㉑에서 ‘재종숙’이 그때 일을 어제 일같이 말한 것은 그가 과거의 일을 아직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임을 전후 문맥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㉒에서 ‘재종숙’의 말투가 점점 과격해진 것은 그가 ‘김만호’의 수상 소식 때문에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흥분하고 있기 때문임을 전후 문맥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㉓의 앞뒤 문맥에서 서술자가 관련된 사안을 예민한 문제라고 느껴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㉔의 앞뒤 문맥에서 ‘교장 어른’이 일제 치하의 상황 논리를 근거로 ‘김만호’의

친일 행위를 두둔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31. 추론적 사고(도표를 활용한 구성 방식의 추리)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서술자인 '나'(인물A)는 이야기Ⅱ 속의 인물인 '강 목사'(인물D)와 '김만호'(인물 E)의 삶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재종숙'(인물B)과 '교장 어른'(인물C)을 차례로 만나서 그들에게 '강 목사'(인물D)와 '김만호'(인물 E)의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야기Ⅱ를 이끌어내고 있다. 작품의 진행 과정으로 볼 때 '김만호'의 '선구적 시민상' 수상의 타당성 여부가 초점이 되고 있는데, '재종숙'은 '김만호'의 수상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김만호'를 두둔하는 '교장 어른'은 그런 '재종숙'의 처사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핵심적 의미는 '선구적 시민상'을 수상하게 된 '김만호'(인물 E)의 실상 규명이며, 동시에 그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강 목사'(인물D)의 실상 규명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이야기Ⅰ과 이야기Ⅱ의 공간적 배경을 다르게 설정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이야기Ⅰ(현재)과 이야기Ⅱ(과거)의 시간적 배경은 분명히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③ 이 글의 갈등 관계는 단순하지 않으며, 갈등 관계를 통해 단일화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이 글의 독특한 구성 방식 때문에 이야기Ⅱ의 비중이 약화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특한 구성 방식 때문에 이야기Ⅱ의 비중이 더 커진다고 보아야 한다.

2009.09 [47~50]
'모반'

오상원, '모반(謀叛)'

작품해설 : 좌우익의 혈투와 여러 정당의 난립 속에서 이해득실을 달리 하는 단체와 집단들의 각축이 치열하던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기를 배경으로 하여, 한 테러리스트가 비정한 조직의 생리와 휴머니티 사이에서 인간적 갈등을 겪는 모습을 그린 수작이다. 아직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바람직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혼란한 시기에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던 부정적 세대를 고발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비밀결사 조직의 지령을 수행하는 동안 벌어진 어머니의 외로운 죽음으로 인해 주인공이 겪는 갈등과 번민, 그리고 조직 활동의 결과로 인한 죄 없는 한 청년과 그 가족의 참담한 희생, 결국은 조직의 폭력성과 비인간성에 회의를 느끼고 조직을 이탈하는 주인공의 모습 등에서 당대의 시대적·사회적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고발하고자 하는 문학의 시대정신을 읽어 낼 수 있다.

[주제] 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되는 조직의 폭력성과 비윤리성 속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함

47.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 나타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작중의 주인공을 가리키는 호칭이 '그'로 되어 있다. 결국 이 글은 시종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그날 밤'과 '며칠 전'의 장면에서 서술자의 시점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지금'(1)의 공간적 배경은 거리의 가로수 아래이고, '지금'(2)의 공간적 배경은 어머니가 누워 있는 방 안이다. ② '그날 밤'은 2개월 전으로 거사가 계획되었던 시간인데, 그 시간에 어머니가 숨져 가고 있었다고 했으므로 어머니가 숨져 가고 있는 순간인 '지금'(2)와 동일한 시간적 배경임을 알 수 있다. ④ 주인공이 '지금'(1)의 시간을 기준으로 2개월 전의 '그날 밤' [= '지금'(2)]을 회상하고 있는 중에, 그 때보다도 '며칠 전'의 일을 회상하고 있으므로 '며칠 전'이 가장 먼저임을 알 수 있다. <보기>의 시간을 실제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며칠 전'→'그날 밤', '지금'(2)→'다음날'→'지금'(1)이다.

48. 추론적 사고(소재의 서사적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보기>의 설명 중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로',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앎을 확장하는 매개', '동시성과 공공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 '현대소설에서 중요한 서사적 기능을 하는 장치' 등의 내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소재는 ㉠~㉣ 중에서는 '신문'밖에 없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조국'이나 '클락슨 소리'는 '주체와 세계를 연결하는 사회적 통로' 및 '타자와 세계에 대한 앎을 확장하는 매개'와 거리가 멀다.

49. 비판적 사고(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의 앞부분에서는 외부 사물의 묘사로 인물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암시하고 있으며, [A]의 끝부분에서는 약 이 개월 전의 상황을 요약하여 제시해 주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A]에서는 ㉠처럼 개념적인 언어로 자신의 사상을 직접 피력하는 표현을 찾을 수 없으며, ㉡와 같은 예상하지 못했던 극적인 반전도 찾을 수 없다.

50. 추론적 사고(대화의 내용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C]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제 할 일'을 더 중요시하는 데 대해 섭섭하게 생각하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을 뿐, '제 할 일'에 대해 불신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② [B]에서 '비밀결사' 조직의 동료는 조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기로 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를 압박하고 있다. ⑤ [B]에서는 비밀결사 조직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C]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타나는데, '그'는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10.06 [23~26]
'외딴 방'

신경숙, '외딴 방'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작가의 열여섯에서 스무 살까지의 시절을 엿보게 한다. 즉,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학의 꿈을 키워 나가던 작가의 어린 시절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은 '내성의 문학'이라 부를 수 있으며, 제목 그대로 외딴 방에서 외롭게 죽어간 한 여자의 가여운 녀에 대한 진혼가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잊고 싶었던 그러나 잊을 수 없는 그 시절, 그 장소로 돌아가서 그 쓰라린 현장을 다시금 복원해 낸다. 그 복원의 대상은 주인공이 침대 후반, 낮에는 전기제품업체에서 공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산업체 특별학급에서 공부하던 시절이다. 이 작품을 실제 사건이 벌어지는 지난 시절과 작품을 쓰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 주기적으로 교차되면서 일반 소설이 주지 못하는 감동을 전해 준다. 이처럼 소설을 쓰는 작가가 작품의 전면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내적 필연성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작가는 작품과 일정한 거리를 취한 채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야기에 개입해서 그 의미를 반추하고 그것의 필연성과 정당성에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런 글쓰기는 이 작품에 강한 밀도와 구체성을 부여해주는 성과를 거두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유년기의 기억과 글쓰기를 통한 자아의 정체성 확인, 글쓰기의 의미에 대한 탐구

23. 추론적 사고(심리적 태도의 추리)

정답해설 : 이 작품의 서술자이자 주인공인 '나'는 '컨베이어', '주산', '대차대조표', '공장 굴뚝의 연기'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싫어한다. 하지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다 써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쓰게 된 '반성문'에 대해서는 '나'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기꺼이 쓰다 보니 노트의 삼분의 일은 되게 길게 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주인공은 '반성문'에 대해서 다른 것과는 다른 심리적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24. 추론적 사고(작가의 서술 전략에 대한 추론)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작가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교차시키면서 성장 과정의 자기 고백을 통해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글쓰기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작가는 간결한 문장을 주로 구사하고 있다. 특히 [B]에서는 간결한 문장을 통해 소설 쓰기의 계기가 된 최홍이 선생님과 만남, 즉 열일곱 시절의 과거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창작 노트의 ㉔가 [B]에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A]에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이야기의 전개 속도가 빨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A]에서 문단 사이에 여백을 주고 있지만 이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기 위한 것이어서, 그것 때문에 인과 관계가 명료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B]에서 '이후 나'와 '열일곱의 나'로 서술자가 스스로를 가리키는 방식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적 분열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⑤ [B]에서 대화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 때문에 사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5. 비판적 사고(작품 내용에 대한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C]는 '나'가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노트에 옮겨 쓰는 장면이다. 이는 '나'가 소설 쓰기를 배워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내용을 통해 '나'의 고단한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나'가 창작의 어려움을 깨달아 가는 모습은 [C]에 나타나 있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④ [C]의 뒷부분에서 '나'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노트에 옮겨 적으면서, 자신의 삶과 유사한 소설 속 인물들의 삶에 공감하며 위안을 얻고 있다. 이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나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고.'와 같은 독특한 문장부호를 사용한 서술을 통해 드러난다. ⑤ '열일곱의 나'가 컨베이어 위에서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옮겨 적는 데서, '나'가 이 소설에 대해 보이는 애착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26. 추론적 사고(다른 작품에 적용하기)

정답해설 : [D]는 작가가 작품의 창작 동기('그때의 기억을 복원시켜 내 말문을 띄워 보고 내 인생의 폐문 앞에서 끊겨 버린 내 발자국을 연결시켜 줘 보기로')를 직접 드러낸 부분이다. <보기>에 제시된 『양주별산대놀이』에서 광대들이 공연하는 동기가 직접 제시된 부분은 '여기 모인 양반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받게 제대로 놀아보자'고 말하는 ④이다. **[정답] ④**

2010.09 [40~43]
'잔인한 도시'

이청준, '잔인한 도시'

작품해설 : 이 작품은 현대 사회의 근원적 속성을 예리하게 파헤친 작품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도시에는 새를 파는 '방생의 집'과 교도소가 있다. 교도소에서 나온 '사내(노인)'는 새 가게 주인이 새의 날개 안쪽 깃털을 조금 자른 뒤, 돈을 받고 새를 놓아주는 것을 본다. 날개가 잘렸기 때문에 새는 멀리 날아가지 못한다. 밤이 되면 주인은 다시 새를 찾아 잡아서 낮에 다시 판다. 새는 낮에는 자유로이 날아갔다가 밤이 되면 다시 붙잡히는 삶을 반복한다.

여기서 날개는 자유를 상징한다. 자유를 억압당하는 새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 나오는 '도시'는 사람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잔인한 곳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사내'는 출옥과 투옥을 반복하는 인물이며, '새'는 자유롭게 날아갔다가 다시 새장에 갇히기를 반복하는 대상이다. 즉 '사내'와 '새'에게는 조작된 해방과 구속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말 부분에서 사내(노인)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남쪽의 고향을 향해 걸어간다. 그곳은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힘이 존재하지 않는 곳, 도시와는 달리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곳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이처럼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로서 상징성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 있는 작품이다.

[주제] 현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시의 비정한 속성에 대한 비판,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고귀한 인간성에 대한 열망

40.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교도소에서 출옥한 '사내(노인)'는 교도소에 남아 있는 친구(동료)들을 위해 새장수에게 새를 사서 방생하는 일을 하기 위해 공원 벤치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새를 파는 가게의 젊은 주인은 '사내(노인)'를 차갑고 냉정하게 대하지만 사내(노인)는 매일 새를 사서 날려 보내는 일을 계속해 간다. 그런데 새들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도대체 어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그 일을 이해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된다. 그러던 중 밤마다 전깃불빛을 앞세운 새 사냥꾼이 새 사냥을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어느 날 밤 쫓기던 새 한 마리가 벤치에서 노숙하던 사내(노인)의 품속으로 숨어들어 오게 되면서 사내의 궁금증은 더욱 심화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인물(=사내 혹은 노인)이 새 사냥에 대한 추리 과정을 통해 '이상스러운 일'의 내막을 알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작품에서 사건은 주로 새 가게와 공원의 숲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장면의 빈번한 전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 ② 제시된 지문 내에서는 주로 현재를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④ 인물 간의 대화보다는 독백이 많다. ⑤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공원의 숲과 벤치, 새 가게 등인데, 제시된 지문에서는 공간적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한 대목을 찾을 수 없다.

41. 추론적 사고(인물의 행동의 이유 추리)

정답해설 : 이 작품에서 사내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 새 장수 젊은이의 비웃음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 가게 주변을 맴돈다. 사내는 지금 교도소에 남아 있는 친구들을 위해 새 장수에게 새를 사서 방생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교도소에 있는 친구(동료)들 모두를 위해 빠짐없이

한 마리씩 새를 사서 방생하는 일이 바로 그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그렇게 교도소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에서처럼 젊은이의 비웃음에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사내가 거쳐하는 곳은 새 가게가 아니라 공원의 벤치이다. ② '젊은이'에게 무언의 항변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단서가 없다. ④ '젊은이'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 ⑤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젊은이'의 말에서만 나타나고 '사내'가 정말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단서를 찾을 수 없다.

42. 비판적 사고(외적 준거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해설 : 여기 제시된 지문은 인물이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자각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아직 현실의 황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졸음기가 말끔히 달아나 버린 사내'가 '모른 채하고 다시 잠을 청할 수' 없는 것은 놀라움에서 안도에 이르는 정서 변화 과정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럽고 생리적인 현상일 뿐이므로, 이를 통해 현실의 황포와 기만에 대한 분노를 확인할 수는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공원 숲 속을 훑어 대기 시작'하는 전깃불빛은 새 사냥꾼이 새 사냥을 하는 장면에서 해당하므로 '공원 숲 속'은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세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새들의 모습은 억압적인 세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어둠'의 부정적 이미지로 볼 때 사냥꾼에 쫓긴 '밤새들이 낙엽처럼 어둠 속을 휘날리'는 장면은 현재의 공간이 부정적인 공간이 되는 것을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새들이 낙엽처럼 빛을 맞고 떨어져 내리는' 상황은 자유를 억압하는 폭력의 결과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43. 추론적 사고(어구의 문맥적 의미 추리)

'그런 사연'은 '새들이 공원 숲을 떠나지 못하고 자꾸만 다시 조롱 속으로 붙잡혀 돌아오는 사연'이다. '사내'가 '그런 사연'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우선 밤에 발생하는 새 사냥(㉠)의 본질이다. ㉠, ㉡는 모두 '밤새 사냥'과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고, ㉢는 '밤새 사냥'의 결과로 일어난 새들의 행동(숲을 떠나지 못하고 다시 붙잡혀 돌아오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는 '사내'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이다. **[정답] ③**

2015.06B [34~38]

'모래톱 이야기'

김정환, '모래톱 이야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낙동강 하류의 가상의 섬인 '조마이섬'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일제 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를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섬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주민들은 자신들의 땅을 이른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중학교 교사로 설정된 서술자 '나'는 조마이섬에서 나룻배로 통학하는 학생 '건우'를 통해서 섬 주민들을 알게 되고, 섬 주민들의 처지와 삶의 내력에 대해 깊은 연민을 갖게 된다. 낙동강에 홍수가 난 상황에서 섬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든 '둑'을 허물려 하고, 섬의 법적 소유자는 '둑'을 지키려 한다. 그 대립의 과정에서 '건우'의 할아버지가 살인을 하고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사건이 마무리된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권력자들에게 패배하는 섬 주민들의 이야기를 증언함으로써 소수 권력자와 다수의 주민 사이의 대립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조마이섬으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본문에 제시된 장면은 서술자 '나'가 '건우'의 글을 읽고, 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섬 주민들의 삶의 내력을 알아가는 과정에 해당한다.

[주제]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연민과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고발

34.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서술자는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함 여성'임을, 볼록한 이마와 짙은 눈썹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건우 어머니'가 의지나 정열을 지닌 인물임을 추론하고 있다. 따라서 [A]는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건우'의 집 안팎의 광경은 '건우'와 '건우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능을 하나, 이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를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② 서술자가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고 느낀 것을 일상적 소재의 나열로 보기 어렵고, 서술자의 판단 또한 복잡한 심리의 표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나, 그 성격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학교에서의 '건우'에 관한 이전 경험을 떠올리고 있기는 하나, 이것을 이후에 전개될 사건에 대한 단서로 보기는 어렵다.

35.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건우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우'의 입성이 깨끗할 정도로 부지런하고 '건우'가 공부를 잘해 '일류 중학'에 갈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인물이다. '일류 중학'은 '건우 어머니'와 '건우'가 어려운 가정 형편 중에서도 이룩한 성취의 의미에 가깝다. 이것을 '모자의 불화'나 '교육관의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건우 어머니'의 '손'이 '상일(별다른 기술이 없이 하는 노동)에 거칠어 있는 양'이라 묘사된 데서 그의 고된 생활을 추론할 수 있다. ③ '책상'이 '사과케잍 같은 것에 종이를 발라' 만든 것임을 볼 때, '건우'네의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함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책 읽은 소감'에 섬 주민들이 '지정해 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 투표한다는 책의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선조 때부터 강물과 싸우며 '둑'을 만들어 온 것이라는 '건우 할아버지'의 말을 통해 '둑'은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6. 원작의 일부 각색, 재구성

정답해설 : <보기>의 시나리오에서, '손에 권 종이(토지 문서)'를 움켜쥐고 부르르 떠는 '건우 증조부(S#98)'와, '종이 조각(토지 문서)'을 들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맞서는 '건우 할아버지(S#99)'는 자신들의 땅으로 여겼던 조마이섬의 소유권이 부당하게 다른 곳으로 넘어간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나머지 인물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거나 경청하고 있다. 제시된 인물 간의 갈등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인물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S#98 시작 부분에서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섬의 전체적인 지형을 카메라에 담은 E.L.S. 기법을 쓰고 있다. ② 일제 때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를 수탈한 사실이 작품에서는 서술자의 생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S#99에서는 대사로 제시되어 있다. ③ 내일까지 섬에서 나가라는 '시커먼 놈들'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물의 대사를 통해 관객들은 이후에 생길지 모를 갈등 상황에 대해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⑤ S#98에서는 '건우 증조부'가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다!'를 외치고, S#99에서는 '건우 할아버지'가 역시 같은 말을 외치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37.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본문의 종막 이후 부분에서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나'에게 들려 준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시작 대목에서 그 이야기가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일화가 붙은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조마이섬'의 두 어른들이 해 준 이야기가 몇 일화를 제외하고 '건우'의 <섬 얘기>와 같다고 해서, 어른들이 '건우'의 글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서술자가 '건우'의 선생님이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조마이섬' 사람들을 만나고 아울러 그곳의 어른들에게서 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해서,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보기>에서 언급한 저항적 주체의 모습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건우'가 그 중심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찾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였다고 했는데, 본문에서도 '나'는 상대방의 말에서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거나, 원한과 저주의 깊은 감정을 읽어내는 등 적극적으로도 공감적인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② '건우'가 쓴 <섬 얘기>가 땅의 소유권에 관한 어른들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건우'는 자신의 글로써 섬의 억울한 현실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④ '기막히는 일화'의 '기막히는'은 현실의 부조리함, 어처구니없음의 뜻에 가깝고, '나'의 이야기에서 그런 일화를 다루는 것은 현실의 부조리한 실상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언급된, 권력의 횡포에 의해 '뿌리 뽑힌 사람들'은, 작품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땅을 빼앗긴 섬 사람들로 형상화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작가가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38.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서술자가 작중 인물의 깊은 원한을 헤아리는 상황이다. 각골통한(刻骨痛恨)이란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을 나타내는 말로 ㉠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가장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을 이르는 말. ③ 전전반측(輾轉反側):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이르는 말.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

2015.11B [38~42]
'무영탑'

현진건, '무영탑'

작품해설 : 이 소설은 불국사의 석가탑 건립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백제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비극적 사랑을 모티프로 창작된 작품이다. '무영탑'은 설화에 얽힌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다. 작가 현진건은 한 석공의 예술혼과 남녀 간의 사랑을 결합하여 석공 아사달이 고뇌와 번민을 이겨내고 신라 시대 최고의 작품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석가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현진건은 '유종'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일제 치하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193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현실에 대응하는 작가의 민족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문으로 제시된 장면은 자신의 딸과 혼사를 진행하려는 금지의 뜻을 거절하려는 유종의 내

면 의식과 아내인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을 하는 아사달의 내면 의식을 담고 있다.

[주제] 고뇌와 번민을 극복하고 이루어 낸 예술적 성취

38.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윗글의 종락 앞부분에는 '주만'의 혼사 문제를 두고 괴로워하는 '유종'의 내적 갈등이, 종락 이후에는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을 진행하는 '아사달'의 내적 갈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윗글에는 인물의 의식이 내적 갈등에 초점을 둔 서술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윗글에는 인물들 간의 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윗글에서는 "한 나이냐 젊었더면!"이 인물의 유일한 발언이다. 이는 고립무원의 처지인 '유종'이 조국의 미래를 염려하며 내뱉는 발언이다. 아울러 '유종'은 조정에서 일하는 사람임을 감안할 때, 윗글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신분이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유종'은 당학파가 득세하는 세대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려 하는 '유종'이 탈속적 세계를 지향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유종'은 당학파가 득세하는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사윗감을 찾으려 하고 있고, '아사달'은 거룩한 부처님의 형상을 돌에 새기려 하고 있다. 따라서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소외된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9.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유종'은, 당학파의 우두머리인 '금지'의 아들 '금성'과 자신의 딸인 '주만'의 혼사를 막기 위해 '다른 데 정혼'을 하여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은 '유종'이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일 뿐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방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유종'은 '금지'로 대표되는 당학파가 당학에 빠져 있는 현실을 개탄하면서 '그네들의 한문'이 난신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알맞은 것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이는 상한 통일을 이룬 신라의 씩씩한 기풍이 당학에 지질리고 나라가 문약으로 흐른다는 '유종'의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종이 ㉡을 신라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② '유종'은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조정에서 사라지고 혼자만 외로이 남은 처지에 놓인 자신을 '무 밑둥'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은 '유종'의 외로운 처지를 보여 주는 비유라 할 수 있다. ③ '이 늙은 향도'는 화랑도를 숭상해 온 '유종' 자신을 가리킨다. 따라서 ㉣은 현재의 주류적 기풍인 당학을 거부하는 '유종'을 지칭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④ '그럴 만한 인물'은 화랑도를 숭상하는 자

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뭇감을 가리킨다. ‘유종’은 당 학파에 맞서 신라의 씩씩한 기풍을 회복하려고 하므로 ㉔은 ‘유종’이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40.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는 어젯밤의 아사녀의 환영처럼 ‘주만’의 모습이 환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며, [B]는 자신을 떠나 보내는 ‘아사녀’의 모습이 환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따라서 [A]의 ‘주만’의 모습과 [B]의 ‘아사녀’의 모습은 모두 ‘아사달’이 그들의 환영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① [A]에는 자신의 모습을 돌에 새겨 달라는 ‘주만’의 간청이 나타나 있을 뿐 떠나는 ‘아사달’에 대한 ‘주만’의 걱정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② [B]에는 떠나는 ‘아사달’과 이별하는 ‘아사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별의 원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B]에는 떠나는 ‘아사달’과 이별하는 ‘아사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훗날의 만남에 대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기약이 나타나 있지는 않다. ④ [A]에는 자신의 모습을 돌에 새겨 달라는 ‘주만’의 간청이 나타나 있으며, [B]에는 떠나는 ‘아사달’과 이별하는 ‘아사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A]와 [B] 모두에서, 이별한 대상인 ‘주만’과 ‘아사녀’를 잊고자 하는 ‘아사달’의 의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4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아사달’은 ‘아사녀’와 ‘주만’ 두 얼굴이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는 장면에서 눈을 번쩍 뜨고, ‘원불’ 상을 돌에 담아내고 있다. 이는 ‘주만’과 ‘아사녀’로 인해 번민하던 ‘아사달’이 고뇌와 번민을 떨치며 종교적 세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사녀’와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했으므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① ‘유종’은 당학파의 우두머리인 ‘금지’를 비판하면서 신라의 씩씩한 기풍을 바로세우기 위해 화랑도 사뭇감을 구하려 하고 있다. 이는 일제 치하의 현실에 서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작가 현진건의 민족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아사달’은 죽은 아내인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내는 작업을 한다. 따라서 ‘아사달’이 ‘아사녀’의 환영을 돌에 담아내려고 하는 장면에는 ‘아사녀’에 대한 ‘아사달’의 사랑과 그의 예술혼을 융합해 내려는 작가 현진건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유종’은 ‘금지’와 같은 당 학파를 나라를 좀먹게 하는 집단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는 외세를 추종하는 당대의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 현진건의

민족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아사달’은 ‘주만’을 떠오르는 햇발에, ‘아사녀’를 샬녘의 하늘에 반짝이는 별만 한 광채에 빚대면서 머리가 어지러워짐을 느낀다. 이는 두 여인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원불’ 상을 어떻게 새겨야 할 것인가를 고뇌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사달’이 ‘아사녀’를 ‘별만 한 광채’로, ‘주만’을 ‘떠오르는 햇발’로 떠올리며 갈등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빛어진 ‘아사달’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윗글에서는 ‘아사녀’의 얼굴과 ‘주만’의 얼굴이 녹아들어 ‘거룩한 부처님’모양으로 변한 것이 ‘원불’ 상으로 새겨지고 있으므로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아니라 여인의 얼굴이 새겨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진 것은 윗글이 [자료 1]과 [자료 2]의 서사 모티프를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㉔**

[오답피하기] ① 윗글에서 ‘아사녀’는 ‘아사달’을 찾아왔으나 끝내 그를 만나지 못하고 그림자뿔에서 죽었다. 이는 ‘아사녀’가 석공과 만나려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자료 1]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윗글은 [자료 1]과 같은 설화를 차용하여 소설로 변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② [자료 2]에서 ‘그’는 제 환상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이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고 조각을 완성하게 된다. 윗글에서도 ‘아사달’이 ‘아사녀’의 죽음을 계기로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내는 작업에 몰입하고 있으므로 윗글은 [자료 2]처럼 ‘아내’의 죽음을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는 관점을 이어 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③ [자료 1]과 [자료 2]에는 ‘유종’과 ‘주만’이 등장하지 않지만, 윗글에서는 ‘유종’과 ‘주만’이 등장하여 서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윗글은 [자료 1]과 [자료 2]의 이야기에 ‘유종’과 ‘주만’ 등의 서사를 추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자료 1]의 ‘연못’은 ‘아사녀’가 석공의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아가던 곳이다. 그러나 [자료 2]의 ‘못’은 ‘그’가 ‘아사녀’의 뒤를 따라 몸을 던지는 곳이며, 윗글의 ‘못’은 ‘아사달’의 아내인 ‘아사녀’가 죽은 곳이다. 따라서 윗글과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변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017.06 [39~42]
‘삼대’

염상섭, ‘삼대’

지문해설 : 삼대에 걸친 가족사를 중심으로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조선 사회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요소는 세

대나 이념 등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과 그들 사이의 갈등이다. 계급과 가문을 중시하는 구시대의 전형인 조 의관과 위선적인 개화 지식인인 상훈, 그리고 합리적이지만 보수적인 지식인 덕기의 상대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동시에, 덕기의 친구이자 사회주의자인 병화, 조 의관의 첩이자 철저한 물질주의자인 수원집 등의 인물들을 통해 근대적 과도기인 1930년대의 다양한 사회적 갈등 양상을 사실적이고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주제] 상대에 걸친 한 가족을 중심으로 본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

39. 인물의 심리

정답해설 : ㉠의 내용을 보면 상훈의 부친이 족보를 만드는 데 ‘한 천 원’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 그 정도의 돈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남의 족보에 부정하게 이름을 올리기 위해 돈을 사용한 것이 남에게 흠잡힐까 봐 ‘난봉자식이 난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줄여 말한 것이다. 또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구실해 보기는 처음’이라고 반응하고 있으므로 ㉠과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해당 내용이 포함된 발언의 맥락을 보면 상훈의 부친은 상훈이 ‘오륙천 원’을 학교에 ‘디밀’었던 것은 결국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을 유인하기 위한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나?”는 질문은 일종의 설의법으로 이해하여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B] 중간 부분에서 덕기가 상훈에게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하시기로…….”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B]의 ‘안방 치장 하나에 천여 원 돈을 묶어서 들인다는 것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고’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B]의 “~늘 이렇게만 하시면야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의 발언에서 ‘이렇게만 하시면야’는 문맥 상 세간을 들이기 위해 천여 원을 들이는, 즉 낭비하는 상훈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덕기가 ‘정미소 장부’를 내놓지 않으려는 이유가 재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0.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바로 앞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여자 손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 값으로 부자 총돌을 하는 꼴을 보이기 싫기 때문’이라고 했으므로 세간 값을 과하게 쓴 것을 아들이 탓하는 말을 못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은 기본적으로 아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실제 덕기에게 하는 상훈의 말이 세간 값을 치를 수 없으면 놓고 가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앞의 맥락을 보면 아들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상훈도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려는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아들의 말을 막는 것은 남들 앞에서 부자간의 ‘총돌’을 막기 위한 것이지 아들과 자신의 의견을 같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 상훈이 아들에게 하고자 한 말은 세간 값을 치루라는 것이고, 그 말은 이미 아들에게 했으므로 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참으려는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1. 갈등 양상 파악

정답해설 : [B]에서 상훈은 자신이 산 세간 값을 아들이 계산해 주지 않고 간섭을 하는 것과, 정미소 장부를 내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나무라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아들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 [A]에서 상훈의 아버지 조 의관은 아들 상훈이 학교에 돈을 디밀고 자신의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 자식을 유인한 치부를 들추어내며 책망하고 있으나 [B]에서 덕기의 아버지 상훈은 아들 덕기의 치부를 들추고 있지는 않다. ㉡ [A]에서 아들 상훈은 아버지가 족보를 사는 일에 돈을 쓰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버지를 동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 부분을 보면 [B]에서 덕기는 아버지 상훈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힌 상황에 동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A]에서는 족보를 사는 데 돈을 쓰는 것을 간섭하는, [B]에서는 세간을 들이는 데 돈 쓰는 것을 간섭하는 아들의 말에 역정을 내며 못마땅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A]에서 아들 상훈은 좀 더 유리한 데에 돈을 쓰지 않고 아버지가 족보를 사는 일에 돈을 쓰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고, [B]에서 아들 덕기는 아버지가 불필요하고 과하게 세간살이에 돈을 쓰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4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과 ㉡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은 영감의 시선에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어 체면 때문에 부당한 일을 남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감내하는 영감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은 덕기의 시선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덕기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절망하고 타락해가는 상훈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에서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은 영감으로 일정하고, ㉡ 역시 덕기로 고정되어 있다. ㉢ ㉢에서는 상훈이 아니라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 관계가 드러나고, ㉣에서는 덕기가 포착한 상훈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다. ㉤ ㉤에서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상훈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에서 덕기는 상훈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하지만 그 심리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에서는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는 ‘옳다’는

것으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에서 상훈에 대한 덕기의 평가는 심리는 이해하지만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4. 고전소설

2008.11 [27~30]

'사씨남정기'

김만중, '사씨남정기'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집안 내의 처첩 간의 갈등을 그린 가정 소설이면서, 당대 속종이 인현왕후를 폐출하고 장 희빈을 중전으로 책봉한 사건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풍간(諷諫) 소설이다. 처에 해당하는 사씨 부인을 선한 인물형으로, 첩에 해당하는 교씨를 악한 인물형으로 설정하여 선한 자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고 악한 자가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구도를 취하고 있다. 제시된 장면은 한림의 고모인 두씨 부인이 유 한림과 사씨 부인을 만나 우려를 표시하는 대목과 유 한림이 교씨의 말을 듣고 사씨 부인을 내쫓기로 결심하는 대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제] 조카 부부의 앞날에 대한 두씨 부인의 염려와 사씨 부인을 내쫓기로 한 유 한림의 결심

27. 추론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작품의 내용은 대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서술자는 사건을 시간에 흐름에 따라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인물의 내면 심리는 최소한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파악되도록 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해설보다는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 그 자체가 사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작중 인물의 대화가 지문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④ 인물의 회상 등을 통해 사건의 흐름이 역전되는 대목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⑤ '누가 한림의 뜻을 돌릴 수 있겠는가?' 등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발견되고 있다.

28. 추론적 사고(세부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사씨가 베치마를 입고 보기에도 처참한 것은 사실이나, ㉠에서 그리고 있는 것은 낡고 해진 사씨의 옷이 아니라, 의복(의 무게)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초췌해져 있는 사씨의 몸이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유 한림이 베푸는 전별 잔치에 사씨가 없는 것을 보고 두 부인이 언짢은 표정을 짓는 것은 사씨가 곤경에 빠져 있음을 짐작하고 그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사씨 문제를 가볍게 처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것은 유 한림이 사씨 문제를 함부로 처리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④ 살아서 두 부인을 뵈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한으로 여겼다는 것은 사씨가 자신이 머지않아 죽을 처지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⑤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니, 사씨 역시 이 상황을 '잘못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그 무엇도 원망할 수 없다는 것은 문제의 책임을 결국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29. 추론적 사고(생략된 정보의 추론)

정답해설 : ㉠에 이어지는 사씨의 말로 미루어 볼 때, ㉡는 사씨의 잘못된 판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사씨는 자신이 '눈은 있으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여' 이 지경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교씨를 첩으로 들이는 과정에서 사씨가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는 교씨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주문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에서는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는 것이며, '사람을 잘 살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교씨의 사람됨을 잘 판단하라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말과 행동의 일치 여부를 언급하며 이행할 수 있는 발언만을 신중하게 할 것을 당부하는 조언이다. 그러나 두씨 부인이 염려하는 것은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사씨가 이행하지 못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의 위험성이다. ② 교씨를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사람을 잘 대해주라는 내용이므로, 교씨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두 부인이 했을 충고로 보기 어렵다. ③ 사람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이므로, 교씨의 사람의 됨됨이에 비판적인 두 부인이 했을 충고로 보기 어렵다. ⑤ 남편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며, 이는 교씨의 사람 됨됨이를 문제삼았을 두 부인의 충고로 적절하지 않다.

30. 추론적 사고(작중 인물의 행동에 대한 비판)

정답해설 :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 따르면, 사씨가 쫓겨나게 된 것은 교씨의 흉계 때문이며, ㉠의 장면도 교씨가 사씨를 모함한 직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에서 '부인의 자리를 첩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교씨가 그 자리를 감당할 능력이나 의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씨가 그 자리에 욕심이 없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유 한림의 마음에 들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교씨가 흉계를 꾸미고, 유 한림에게 사씨를 모함한 것이 모두 '그 자리'(부인의 지위)를 노리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교씨의 속마음과 외적인 언행이 상반되는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기에 적절한 표현은 표리부동(表裏不同)인데, 이는 '겉과 속이 같지 않다'를 의미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경거망동(輕舉妄動) : 경솔하고 망령된 행동. 교씨는 오히려 속마음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으며, 속

마음을 경솔하게 노출하고 있지 않다. ③ 호가호위(狐假虎威) :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교씨가 유 한림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빌려 다른 짐승들에게 위세를 부리는 상황과는 같지 않다. ④ 방약무인(傍若無人) :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여 어려움이 없음을 의미한다. 유 한림에게 교씨가 눈물로 거짓 하소연하는 대목이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비판하기 어렵다. ⑤ 감탄고토(甘香苦吐)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사리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제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안 맞으면 싫어한다는 말이다. 집안의 가부장인 유 한림이 교씨에게 감탄고토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2009.11 [47~50]
'박씨전'

작자 미상, '박씨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병자호란으로 인한 패배감을 심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창안된 군담 소설의 하나이다. 그러나 청나라에 굴욕적인 화친을 맺은 역사적 사실을 뒤집어 당시의 치욕을 되갚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다. 병조 판서 이시백의 아내인 박씨 부인은 도통한 경지에 이른 인물로 청나라의 계락을 미리 알아차리고 청나라의 침략을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한다. 제시된 지문은 이시백과 박씨 부인의 결혼을 성사하기 위해 상공이 박 처사와 언약을 하고 금강산을 찾는 장면이다.

[주제] 박 처사의 딸과 이시백의 혼인(작품 전체 주제 : 박씨 부인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47. 추론적 사고(인물의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상공은 박 처사의 딸과 자신의 아들 시백의 혼사를 허락할 때, '처사의 도덕이 높으니 딸 또한 영민'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부인이 재상가에서 근본도 모르는 집안과 경솔히 혼약을 했느냐며 다그칠 때, '처사의 딸이 재덕을 경비했다' 하기에 혼약했다고 했다. 이로 보아 상공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외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답] ②

[오답피하기] ① 박 처사는 상공의 인품 때문이 아니라 '존문에 이르러 아드님을 보니 마음에 드는지라.'에서 알 수 있듯이 아들을 보고 혼인을 청한 것이다. ③ 상공의 부인은 박 처사 딸의 재주를 의심하여 혼인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근본도 모르는 집안'이라 반대한 것이다. ④ 초동들은 상공이 묻는 말에 박 처사에 들은 이야기를 전해줄 뿐이다. ⑤ 이시백은 아버지 상공의 뜻을 따라 혼인을 하기 위해 금강산을 따라 왔다. 이시백이 돌아가자는 것은 아무리 찾아도 박 처사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48. 추론적 사고(내용의 세부적 이해)

정답해설 : 시백이 부친을 위로하며 고사를 인용한 것은 지난 일은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쓸쓸함'은 고사에서 한 무제가 겪은 감정이지 현재의 시백이나 상공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귀맥, 극히 불가하오나, 아니하오면, 하나이다'에서 극진한 경양 표현을 엿볼 수 있다. ② 부인은 '혼인은 인륜대사'라는 한문 구절은 인용하며 혼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③ '좌우 산천 바라보니'의 시선은 바로 인물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풍경에 대한 시각적 묘사와 시냇물, 두견성의 청각적 묘사를 통해 박 처사를 찾지 못해 애가 타는 상공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49.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보기>에서 말한 수직적 사고는 초월계를 현실 세계보다 상위의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했다. 부인이 상공의 혼인 결정을 수긍하지 못하는 것은 계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지 이러한 수직적 사고 때문이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금강산은 현실 세계와 초월계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공간이다.

50. 어휘·어법(한자성어에의 적용)

정답해설 : ㉠에서 상공은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즉, 혼인을 치르러 왔다가 그냥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박 처사를 찾지도 못한 상황에서 금강산에 마냥 있기도 힘든 상황인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란 의미이다. ② 모든 것에 미련을 버리고 마음을 접는다는 의미이다. ③ 기회를 놓쳐 시기가 지나갔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⑤ 인간의 길흉화복은 예측하기 힘들기에 좋은 일에 너무 기뻐하지 말고 슬픈 일에 너무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2010.06 [43~46]
'수궁가'

작자 미상, '수궁가'

작품해설 : 이 작품은 구토지설과 같은 설화가 판소리로 정착된 것으로서, 평민 예술 특유의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이 돋보인다. 용왕과 토끼의 대립, 독수리와 토끼의 대립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속이는 지배 계층과 이를 꾀로 모면하는 피지배 계층의 대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제] 위기를 극복하는 토끼의 지혜

43. 비판적 사고(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수궁'에서 자신의 간 때문에 목숨을 잃을 처지에 있던 토끼가 위기를 모면하고 육지로 오는데, '육지'에

서 다시 독수리를 만나 잡아먹힐 위기에 봉착한다. 하지만 토끼는 꾀를 내어 위기를 다시 모면한다.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공간의 이동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이 작품은 우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특정 시대 상황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지 않다. ③ 갈등이 고조된대기보다는 갈등 또는 위기가 해소되는 상황이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고사의 '오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⑤ 주인공 토끼의 행동을 '잘못'의 반복으로 보기 어렵다.

44. 비판적 사고(말하기 방식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권력자인 용왕의 권위가 부분적으로만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주로 불행한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B]는 토끼가 독수리를 조롱하고 단념시키는 상황이므로, '연료를 내세워 상대를 설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A]에서 토끼가 자신의 배를 가르라고 할 정도로 호언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을 숨기기 위한 것이며, [B]에서 '내 발길 나가면 네 해골 터질 테니'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④ [A]에서 '배를 따', '똥', [B]에서 '해골이 터질 테니' 등의 비속어가 쓰이고 있다. ⑤ [A]는 표면상 토끼가 별주부에게 하는 말이나 용왕을 포함한 다른 청중들까지 설득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말이다. 반면 [B]는 토끼가 바위 구멍 밖의 독수리에게 하는 말이다.

45. 어휘·어법(한자성어를 활용한 반응)

정답해설 : ㉠ '토공을 모시고'는 용왕이 별주부에게 토끼를 데리고 물으로 가라고 명을 내리는 상황으로, '토공'과 '모시고'와 같이 토끼를 우대하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 이는 토끼의 비위를 조금이라도 거스르지 않으려는 용왕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반영된 것이다. 천려일실(千慮一失)은 '천 번 생각에 한 번 실수'라는 뜻으로, 여러 생각 가운데 잘못되는 것이 있을까봐 염려하는 용왕의 태도를 표현하기에 적절하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허장성세(虛張聲勢)'는 '실속은 없으면서 허세만 떠벌림'을 뜻하며, 조심스러운 용왕의 태도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다. ② '수주대토(守株待兔)'는 송(宋)나라의 한 농부가 나무그루에 토끼가 부딪쳐서 죽는 것을 보고, 농사를 팽개치고 나무그루에 토끼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말로, '구습을 고수하여 변통할 줄 모름'을 이른다. 용왕이 토끼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맞으나, 이 상황에 '수주대토'는 어울리지 않다. ③ '간을 속히 가지고 오겠나이다'라고 말하는 토끼에게서 용왕이 '안하무인'의 태도를 인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안하무인(眼下無人)'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이다.

⑤ 용왕은 토끼가 간을 가지고 돌아올 것으로 믿고 있으므로, '겨우 잡아 온 토끼를 놓아주어야 하다니'의 반응을 보이기는 어렵다. '자가당착(自家撞着)'은 '같은 사람의 문장·연행이 앞뒤가 어긋나 모순됨'을 뜻한다.

46.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의사중치'는 독수리가 토끼를 잡아먹느냐, 토끼가 독수리로부터 벗어나느냐의 상황에서 토끼가 생각해진 꾀에 해당한다. '의사중치'로 인해 토끼는 독수리를 속이고 독수리는 토끼를 놓치게 되었으므로, '의사중치'가 독수리와 토끼가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독수리는 '의사중치'란 말을 듣고, 관심을 토끼에게서 (의사중치에서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썩은 도야지 창자, 도야지 새끼나 개 창자' 등으로 돌리게 된다. ② 토끼는 '의사중치'를 수공의 용왕에게서 획득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④ 독수리를 현혹시킨 '의사중치'는 토끼의 꾀에서 비롯된 것이며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 대상이다. ⑤ '의사중치'는 독수리의 더 많은 먹이를 바라는 욕망과 토끼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얽히는 대상이다.

2011.09 [21~24]
'김원전'

작자 미상, '김원전'

작품해설 : 이 작품은 나쁜 상황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탈각(脫却) 설화뿐만 아니라 용궁 설화, 연적 설화, 재생 설화 등 다양한 설화를 바탕으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주인공 김원은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지상계에 태어나 그 운명이 처음에는 불행했으나 나중에는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다시 천상계로 승천한다. 주인공이 여러 고난을 극복하고 부귀공명을 누리고 있는데, 이는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서사 전개 구조와 유사한 것이다.

[주제] 김원의 환골탈태와 고난 극복

21.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김원은 허물을 벗은 다음 부모님 앞에서 자신이 허물에 쌓여 있었던 십 년의 시간 동안 부모님께 불효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흉한 모습에 대해 부모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김 승상은 흥물이 태어난 것과 관련해 선녀의 말과 선녀가 출산을 도와준 것을 근거로 자신의 부인을 위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흥물이 태어난 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말하기는 하고 있지 않다. ② 부인은 흥물이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웃으며 밥을 더 주고 있

다. 이때 흥물이 밥을 주는 대로 먹는 것을 괴히 여기기는 했으나 근심하지는 않았다. ③ 노복이 흥물을 대한 부인의 태도를 비웃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김 승상 부부는 흥물이 허물을 벗고 선동(仙童)이 된 것에 대해 자초지종(自初至終)을 알고 싶어 김원에게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고 있다. 이웃의 반응을 보고 의혹을 해소하고 있지 않다.

22. 추론적 사고(자료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김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내실(內室)이 비어 있는 것을 알고 의혹을 갖던 차에 비복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김 승상에게 월영각에 흥물이 없어지고 선동(仙童)이 앉아서 김 승상을 찾고 있다고 보고하며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복은 흥물이 선동으로 변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비복은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에 관한 언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것’은 본래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사물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것’이라고 호칭했다는 것은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 흥물로 적강(謫降)한 김원을 처음에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② 김원이 적강(謫降)한 인물이기 때문에 변신 과정에 선관이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 ③ ‘골육(骨肉)’은 ‘혈육(血肉)’과 유사한 말로 부모와 자식 간을 일컫는다. ‘원(圓)’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확정되었음을 나타낸다. ⑤ ‘불초자’는 아들이 부모를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일인칭 대명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김원이 부자 관계를 확인받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23. 추론적 사고(개별 서사 요소의 의미 추론)

정답해설 : 김원은 부모가 주는 밥을 먹고 보살핌을 받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 ‘성장’에는 부모가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의 과정에는 부모가 참여하고 있지 않다. ‘변신’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선관’이다. 따라서 ㉠, ㉡의 서사 요소가 지상계의 의지만으로 천상계의 질서가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주인공은 자신의 뜻에 의해 스스로 적강하지 않고 죄에 대한 벌로 적강하였다. ② 천상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 ㉡는 김원이 적강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상계의 사건이 천상계의 일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은 천상계가 지상계보다 근원적인 공간임을 나타낸다. ③ 부모가 ㉠, ㉡에 대해 의심을 품게 된 것은 ㉠, ㉡가 괴이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 ㉡를 괴이하다고 여기기 위해서는 괴이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즉 지상계의 질서에 비추어 봤을 때 ㉠, ㉡가 괴이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⑤ 김원은 자신이 벗은 ‘허물’을 통해 ㉠을 확인받고 있다.

이 글의 처음에는 강남흥이 취봉루에서 잠시 잠이 드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 이후는 꿈의 장면으로, 휘황한 천상계의 백옥루가 나타난다. 강남흥은 자신을 인도한 보살을 통해 자신들이 천상계에서 적강한 인물들임을 알게 된 후 꿈에서 깨어난다. 꿈을 꾸고 깨는 사건을 통해 장면을 전환하고 있는데, 특히 천상계라는 환상적 공간에 진입하고 그곳에서 나가는 장면은 보살이 던지는 석장에 의해 순식간에 장면 전환이 일어난다. **정답 ③**

24. 추론적 사고(한자성어의 이해 및 적용)

정답해설 : ㉠에서 승상 부부가 말한 것은 십 년 동안 고생을 해서 선동(仙童)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고진감래(苦盡甘來)’와 그 의미가 통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괄목상대(刮目相對) :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늙을 이름. ③ 권불십년(權不十年) : 권세는 십 년을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오래가지 못함을 이르는 말임. ④ 동상이몽(同床異夢) :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딴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름. ⑤ 오리무중(五里霧中) : 오리나 되는 짙은 안개 속에 있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 대하여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음을 이름.

2014.11B [31~34] '옥루몽'

남영로, '옥루몽'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평생 은거한 남영로가 1840년경에 지은 소설로서, 자신이 쓴소설 ‘옥련몽’을 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이다. 이 소설은 몽자 소설(夢字小說)의 계보를 집대성한 작품이자 군담계 영웅 소설이다. 또한, 이 소설은 처첩 간의 갈등이라는 요소를 보면 가정 소설로서의 면모를 지녔고,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사랑을 이뤄 나가는 애정 소설의 특성도 띠고 있어서, 대중적인 재미와 문학적인 품격을 겸비한 고전 소설의 백미로 꼽히던 작품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하였고,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조선 후기의 다양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주제] 양창곡의 영웅적 일생과 부패한 현실에 대한 비판

31.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의 처음에는 강남흥이 취봉루에서 잠시 잠이 드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 이후는 꿈의 장면으로, 휘황한 천상계의 백옥루가 나타난다. 강남흥은 자신을 인도한 보살을 통해 자신들이 천상계에서 적강한 인물들임을 알게 된 후 꿈에서 깨어난다. 꿈을 꾸고 깨는 사건을 통해 장면을 전환하고 있는데, 특히 천상계라는 환상적 공간에 진입하고 그곳에서 나가는 장면은 보살이 던지는 석장에 의해 순식간에 장면 전환이 일어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이 글은 주로 전지적 서술자의 설명이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자신의 주관적 의견

을 드러내는 서술자의 개입은 없으며 미래 사건에 대한 예고도 없다. ② 이 글은 꿈을 통해 주인공들이 천상계에서 적당하였음을 보여준 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음을 드러내는 작품의 결말 부분으로, 인물 간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꿈의 장면, 꿈 이후 인물들의 대화, 후일담 등이 나타나지만, 인물의 내적 독백은 없으며 난관 극복 의지 또한 인용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⑤ ‘눈썹이 푸르며 얼굴이 백옥 같은데 비단 가사를 걸치고 석장을 짊고 있다’라는 보살에 대한 외양 묘사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보살에 대한 외양 묘사는 인물이 평범한 인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32. 인물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강남홍은 꿈에서 한 명산에 이르러 보살을 만나 남천문에 오게 된다. 그곳에서 백옥루를 바라보다가 한 선관과 다섯 선녀가 취하여 자는 모습을 보게 된다. 보살은 그중의 한 선녀(홍란성)가 바로 강남홍의 전신이라 말하며 그들이 천상계의 인물이었으나 하계로 적당하였음을 알 수 준다. 강남홍은 선관과 선녀를 멀리서 바라보았을 뿐 그들과 재회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도사는 누구시며 인간지락은 무엇을 이르는 것입니까?”라는 강남홍의 물음을 통해, 강남홍이 보살을 명산에서 처음 만났음을 알 수 있다. ② ‘보살이 웃고 석장을 공중에 던지니 한 줄기 무지개 되어 하늘에 달았거늘~큰 문이 있고 오색구름이 어리웠는지라.’를 통해 보살이 인도하여 남천문에 당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홍란성은 즉 그대의 전신이니라.”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허 부인의 “내 고향에 있을 적 늦도록 무자하여 옥련봉 돌부처에게 기도하고 연왕(양창곡)을 낳았으니”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3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보기>는 ‘옥루몽’의 환몽 구조를 설명한 글이다. ‘옥루몽’은 다른 환몽 구조와 달리 속세에서 천상계에 대한 꿈을 다시 꾸는 중층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홍이 취봉루에서 꿈을 꾸는 것은, 인간계에 적당한 인물이 꿈을 통해 다시 천상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속세에서 천상계로의 입몽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강남홍은 꿈에서 보살의 도움으로 백옥루를 보게 되고, 백옥루에서 취해 자고 있는 인물 중의 하나가 자신임을 알게 된다. 이는 속세에서의 입몽을 통해 천상계에 진입한 것이며 강남홍은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 ③ 강남홍은 천상계를 경험하는 꿈에서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보살은 인간 인연을 마치지 못하였다고 말하며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보살이 강남홍을 다시 인간계로 보내는 각몽을 유도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다. ④ 허 부인은 연왕을 낳게 해준 돌부처가 강남홍의 꿈에 나타난 보살임을 말하면서 암자를 창건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천상계에서 속세로의 각몽 이후 속세에서의 보답이라 할 수 있다. ⑤ 속세에서 천상계로 돌아가는 것은 <보기>를 보면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 양창곡 일가가 천수를 누리며 영화롭게 살았음이 드러나므로, 이 작품은 속세에서의 연을 다한 후 천상계로 복귀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34. 어휘의 문맥적 의미

정답해설 : ‘배회하며’는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며’라는 뜻으로, 이 글의 문맥으로 볼 때는 ‘돌아다니며’ 정도로 바꾸어 쓰는 것이 좋다. ‘어울리며’는 ‘함께 사귀어 잘 지내거나 일정한 분위기에 끼어들어 같이 휩싸이며’의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의지하여’는 ‘다른 것에 몸을 기대어’의 의미이다. ② ‘망연히’는 ‘아무 생각이 없이 멍한 태도로’의 의미이므로 ‘멍하니’는 적절하다. ③ ‘인도’는 ‘이끌어 지도함’ 또는 ‘길이나 장소를 안내함’의 의미이기에, ‘이끌어’가 적절하다. ④ ‘휘황한데’는 ‘광채가 나서 눈부시게 번쩍이는 데’의 의미이다.

2015.06B [39~42]
‘임경업전’

작자 미상, ‘임경업전’

작품해설 : ‘임경업전’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민족적 영웅이었던 임경업 장군의 비극적 일생을 허구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작품 속에는 청나라에 대한 강한 적개심과 국가의 위기 상황에도 사리사욕만을 일삼던 간신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병자호란의 국치는 우리 민족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의식과 함께 간신들에 대한 민중의 비판 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출제된 부분에는 임경업의 충신으로서의 면모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충신을 제거하려는 간신 김자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주제] 임경업의 비극적 생애와 병자호란의 패전에 대한 정신적 승리감

39.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임경업의 충절과 강직함에 감동한 호왕의 배려로 세자와 대군은 이미 귀국한 상태이며, ‘경업이 돌아오면 나의 계교를 이루지 못하리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김자점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임경업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호왕이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가 정을 표하리라.’라고 말한 부분과 이에 대해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 온 인물을 청하여 어서 돌아가기를 원하니’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호왕이 ‘장군이 내게는 역신

이나 조선에는 충신이라'고 말한 부분과 '큰 잔치를 벌여 대접하고 예물을 갖추어 보낼새'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③ '호왕의 여러 신하들이 '보내어도 해로움이 없사오니, 의로써 보내면 조선이 또한 의로써 성길 것이니 보냄이 마땅하니이다.'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너희는 무사히 돌아왔거니와, 경업은 언제나 오리오." 하시고 탄식하시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임경업의 소원대로 세자와 대군을 귀국시켜 주는 장면과 임경업이 부마가 되어주기를 재삼 권유하고 이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장면은 모두 호왕이 임경업의 강직함에 얼마나 깊이 감동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건 전개에 연속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임경업 부마 삼기'가 성공했다면 임경업은 계속 청나라에 머물러야 한다. 오히려 이 사건이 실패함으로 공간적 배경이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 청나라로 공간적 배경이 전환될 계기가 무산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공주가 ~ 경업의 관상 보기를 청하거늘'에서 알 수 있듯이 호왕의 제의에 공주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경업이 부마에 뽐힐까 두려워하여'와 '경업이 죽기로써 좇지 아니하니'에서 알 수 있듯이 임경업은 부마가 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공주의 외모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공주는 아버지의 제안에 관상 보기를 청하는 행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관상을 본 결과와 상관없이 임경업에게 부마 제안을 하는 호왕의 모습이 지문에 나타나 있지만 이것이 왕실의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죽기로써 좇지 아니하니'와 '경업이 돌아감을 청하니'에서 알 수 있듯이 ㉠은 억류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은 내심이 담긴 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은 '항복하면 왕을 봉하리라'는 회유에 대응하는 말이고, ㉡은 '부마가 되어 부귀를 누림이 어떠하뇨?'라는 권유에 대답하는 말이다. ② ㉠은 '내 어찌 목숨을 위하여 네게 항복하리오.'를 통해, ㉡은 '조강지처가 있사오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은 '병자년에 우리 주상께서 ~'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사건을, ㉡은 '하물며 조강지처가 있사오니'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은 결혼한 사람임을 밝혀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④ ㉠은 호왕에게 '네게 항복하리오.'라고 말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는 말하기이며, ㉡은 '지극히 황공하며'와 '존명'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상대를 높이며 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보기>에서 낭독을 통해 청중은 낭독자의 안내에 따라 작품을 수용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작품 속의 주요 백성들은 임경업이 칼을 쓰고 잡혀가는 것이 무슨 연고인 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임경업전이 창작되어 향유되던 시대의 사람들인 청중은 청에 대한 적대감과 임경업에 대한 흥미 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작품 내용 전반의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청중이 무슨 연고로 임경업이 잡혀가는지를 모른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을 통해 인물의 심리가 즉각 전달된다고 하였으므로, 청중이 적국의 왕을 꾸짖는 임경업의 심리를 느끼면서 통쾌함을 느낄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은 작중 상황을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청중은 '세자'에 대한 '주상'의 분노를 생생하게 느낄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은 작중 인물이 청중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은 극적 환상을 일으킨다고 하였으므로 '사자'의 말을 직접 듣는 듯한 환상을 느낄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은 청중으로 하여금 작품을 수용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청중이 충신을 제거하려는 간신배가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2017.06 [43~45]
'최척전'

조위한, '최척전'

지문해설 : 이 소설은 전란의 와중에 이산과 상봉, 유랑과 귀향을 겪은 최척과 옥영가족의 이야기이다. 시간적으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공간적으로는 조선, 일본, 중국, 베트남, 만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소설들이 중국이나 조선만을 소설 속 배경으로 삼은 것과 달리, 사건의 무대가 광범위한 지리적 공간이라는 것이 특징일 만하다. 소설의 배경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 당시의 전란을 겪은 민중의 고통을 다루었다는 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초자연적 도술이나 우연이 아닌 주인공들의 노력 위주로 이루어진 점 등의 측면에서 사실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제시된 장면은 일본에 끌려간 옥영이 돈우의 상선을 타고 안남(베트남)으로 오고, 명나라로 건너갔던 최척도 동료들과 상선을 타고 안남으로 왔을 때, 최척의 피리 소리와 옥영의 시 소리가 매개가 되어 극적인 상봉을 이루는 장면이다.

[주제]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43.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

정답해설 : 두 주인공의 재회 과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이다. 타국(베트남)의 강어귀에서 쓸쓸함을 느낀 최척이 조선의 곡조로 피리소리로 마음을 달랠다. 귀에 익은 피리소리를 들은 옥영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느껴 자신이 남편과 있을 때 창작했던 시를 조선말로 읊는다. 이 소리는 다시 최척으로 하여금 일본인의 배를 찾게 만들어 둘은 극적인 상봉에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두 사람의 상봉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한 매개체는 조선의 곡조로 연주한 최척의 피리 소리와 옥영이 조선말로 읊은 시이다. 피리의 곡조와 조선말의 시는 모두 두 인물이 과거에 함께 나눈 문화적 경험이며, 문화적 경험에 대한 공동의 기억이 두 인물의 상봉을 가능하게 한 매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장면에서는 최척과 옥영을 제외한 조선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최척과 옥영이 주변 인물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나, 그들에게 베푼 자비로 인해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④ 돈우가 옥영을 남성으로 오해하기는 하였으나, 옥영의 고난은 전란으로 인한 것이지, 돈우의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최척과 옥영이 상봉하면서 통곡하자 주변 인물 중 울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한편 돈우가 자신이 아끼는 옥영과의 이별을 슬퍼하기는 하나 최척과 옥영의 상봉에 관하여 의심을 품는 것은 아니다.

44. 작품 배경의 의미,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최척은 아내가 창작한 시구를 아내와 비슷한 목소리의 인물이 읊는 것을 듣고, 그 인물이 혹시 아내가 아닌지 확인하려는 강한 욕구를 갖는다. 깊은 밤에 소란을 일으킬까 염려되어 아침까지 잠도 자지 않고 때를 기다린 다음, 아침이 되어 아내와 상봉한다. 따라서 밤은 최척이 이제껏 헤어졌던 아내와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서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때이고, 아침은 극적인 상봉을 통해 그 긴장이 해소되는 때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글에서 밤에 오고가는 피리 소리와 시 읊는 소리는 최척과 옥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에 해당하며, 초월적 존재와의 교감인 것은 아니다. ② 부부가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고 재회에 이르는 과정을 위기의 조성과 해소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③ 밤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다음날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아침에 계획 실행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 ④ 아침에 부부의 이별이라는 문제상황이 해결된 것이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새로운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다.

4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최척의 말에 따르면, 밤에 옥영이 읊은 시는 부부가 헤어지기 전 아내가 짓고 읊었던 시이다. 옥영이 옛날에 지은 시를 읊고 한숨까지 내쉬는 것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유랑하는 처지에 대한 탄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아야지, 시가 이산과 유랑 체험을 담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제시된 장면의 시간적 배경은 '경자년(1600년)'이다. 돈우가 옥영을 데리고 있게 된 지가 '4년'이라고 하였으므로, 옥영이 고향을 떠난 것은 1596년쯤으로 볼 수 있다. 이때는 임진왜란(1592~1598년)의 기간에 속하므로, 이 작품의 사건은 전란과 유랑 체험의 역사적 실제성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최척이 일본인의 배를 찾아가게 된 것은 일본인의 배 안에서 '조선말'로 된 시 읊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또 옥영이 저절로 시를 읊게 된 것은 '조선의 곡조'로 된 피리소리를 듣고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선말', '조선의 곡조'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사건의 배경이 타국(안남의 강가)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④ 부부의 상봉을 지켜보며 놀라 소리치거나 함께 통곡하는 사람들은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들이며, 이들의 눈물은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⑤ 돈우가 옥영을 넘길 때 돈 받기를 사양하고 오히려 옥영에게 전별금을 주는 것은 '하늘'의 뜻에 따르는 양심을 보여주는 행위로, 임진왜란 당시 교전국이었던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넘어서서 인간적 배려에 해당한다.

2018.09 [33~37]
'춘향전', '춘향이별가'

고전 소설- (가) 작자 미상, '춘향전', 고전 시가- (나) 작자 미상, '춘향이별가'

지문해설 : (가)는 조선 시대 전라도 남원을 배경으로 하여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판소리계 소설이다. 표면적으로는 양반 자제 이몽룡과 퇴기 딸 춘향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그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신분적 제약을 벗어나려는 인간 해방의 주제 의식을 담아내고 있다. 특히 춘향과 이몽룡이 신분의 격차를 뛰어넘어 사랑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정절을 지키려는 춘향의 굳은 의지와 탐관오리를 척파하는 이몽룡의 모습이 잘 형상화되어 있다. 제시문은 부친의 승진에 따라 이몽룡이 남원을 떠나는 부분으로, 이별을 슬퍼하는 춘향이 이몽룡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주제] 춘향의 굳은 절개와 탐관오리에 대한 비판 / 안타까운 이별로 인한 비애감

지문해설 : (나)는 판소리 '춘향가'의 일부분을 노래로 만든 조선 시대의 잡가이다. 당시 인기 있었던 판소리 '춘향가'에서 청중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부분인 춘향과 이도령의 이별 장면을 따로 떼어 노래하고 있다. 한편, 잡가는 조선 시대 문학 작품 중 일부를 수용하여 당대의 정서를 표출하였고, 또 그중 일부가 국악, 민요 형식으로 현대에 계승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선 시대 문학이 현대로 계

승되는 과도기적인 문학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주제] 이별로 인해 춘향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비애감

33. 인물의 성격, 태도 파악

정답해설 : (가)에는 진시황의 분서 사건, 박랑사와 관련된 사건 등의 고사가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별 상황에 직면한 '춘향'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을 뿐 '춘향'이 당연한 상황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을 말하기 위해 활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도련님'은 '어르신네 공조참의 승진'으로 인한 이별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네 말이 다 못 될 말이니, 아무튼 잘 있거라'에서 알 수 있듯 이 상황의 불가피함을 말하고 있다. ② '이런 일 있겠기로 처음부터 마다하지 아니하였소?'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은 처음 만날 때부터 이별의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하였다. ③ '제비가 되어 도련님 계신 처마에 집을 지어 ~ 도련님 품으로 들어가 볼까!'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은 '도련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제비'라는 자연물에 의탁하여 드러내고 있다. ⑤ '옥황전에 솟아올라 억울함을 호소하여'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은 할 수만 있다면 이별의 억울함을 천상적 존재인 옥황에게 호소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34.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의 앞부분인 '도련님은 사대부라 여기저기 청탁하여 또다시 송사에 지게 하겠지요'를 고려할 때, '판결문'에는 춘향이 송사에 패소하는 내용, 즉 '도련님'에게는 죄가 없다고 판결한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광한루에서 날 호리려고'에서 알 수 있듯이, '명문'을 쓴 것은 춘향이 아니라 '도련님'이다. ② '본관 원님께 이 사연을 하소연 하겠소'에서 알 수 있듯이, '소지'에는 '춘향'의 억울함이 담겨 있을 것이다. ③ '순사또도 같은 양반이라 또 나를 패소시키거든'에서 알 수 있듯이 '편지 한 장'은 '도련님'이 '춘향'과의 친밀감을 강화하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순사또에게 재판에 대해 청탁하기 위해 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도련님'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내용, 즉 자신의 죄가 없음을 밝히는 내용이 담길 것이다. ⑤ '마음속에 먹은 뜻을 자세히 적어'에서 알 수 있듯이 '상언'을 쓸 때는 '순사또'의 힘을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춘향'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쓸 것이다.

35.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백 년 살자 언약할 때 물을 두고 맹세하고 산을 두고 증상 되자더니', '이제 와서 이별이란 웬 말이오'를 고려할 때, ㉠의 표현에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

했던 맹세가 깨져 버린 상황에 대한 '춘향'의 심화된 슬픔이 담겨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한 이해라 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휘휘칭칭 감아쥐고라도 날 데리고 가시오'를 고려할 때, 여인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삼단 같이 좋은 머리'채를 잡혀서라도 '이 도령'을 따르겠다는 '춘향'의 말은 자신의 머릿결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② '두어 두고는 못 가시리다'를 고려할 때, 문맥상 ㉠은 초월적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통해서라도 이별을 막고 싶은 '춘향'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③ '춘향'이 이별을 막기 위해 '도련님'이 탄 말의 꼬리를 잡고, 말은 춘향의 가슴을 차는 모습은 안타깝고 절박한 상황을 희화화한 면은 있지만, 이것이 현실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산첩첩 수중중한데'를 고려할 때, '이 도령'과 이별하게 되면 그와의 재회가 어려울 것임을 '춘향'이 탄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36.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나)에는 이별을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슬픔을 하소연하는 '춘향'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지만 이별 후 자신이 겪을 고난에 대해 말하는 '춘향'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는 '춘향'의 치밀한 면모도 확인하기 어렵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춘향'은 자신의 억울함을 '원님, 순사또, 형조, 한성부, 비변사' 등에 하소연하여도 그들은 같은 양반인 '도련님'의 편을 들 것이라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신분 제도가 있었던 당대를 살아가던 양반에 대한 민중들의 의식을 '춘향'의 면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② '소지, 소장' 등을 통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이에 패소하더라도 '팔만장안 억만가호'에 걸식하여 종이를 구해 임금께 '상언'을 쓰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바탕으로 '춘향'의 적극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④ '할 수 없이'에서 알 수 있듯이, '춘향'은 이별을 안타까워하면서도 주안상을 차려 송별연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이 처한 이별 상황을 받아들이는 '춘향'의 수용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⑤ (가)와 (나) 모두에서 '춘향'은 '이별'이라는 글자를 만든 사람을 자신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천하장사 항우'로 하여금 이 글자를 깨치고 싶다고 말함으로써 이별상황에 놓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복받친 감정을 토로하는 '춘향'의 걱정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다.

37.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B]에는 ‘이별이라네 이별이라네 이 도령 춘향이 이별이로다 춘향이가 도령님 앞에 바짝 달려들어 눈물짓고 하는 말’이라고 말하는 서술자 역할을 하는 화자와 ‘도령님 들으시오 나를 두고 못 가리다 ~ 날 살려 두고는 못 가시리다’라고 말하는 ‘춘향’의 역할을 하는 화자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역할이 다른 두 화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모두 ‘춘향’과 ‘이 도령’이 이별하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이것을 <보기>에 제시된 ‘연속되지 않은 장면들이 엮여 작품이 구성되었음을 알게 해주는 단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춘향’은 자신에게 닥친 이별의 안타까움을 ‘생논 나을 일’이라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등장인물의 겪고 있는 내면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과장된 표현을 <보기>에서 언급한 작품의 흥미를 높이려는 취지와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② [A]에서 ‘춘향’은 이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도령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들이 거듭되어 진술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보기>에서 언급한 분량을 늘리려는 잡가의 담당층의 의도와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이라 할 수 있다. ③ [B]의 첫 행의 경우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이별이라네’로 시작하고 있다. 이런 집약적인 표현은 청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도입 방식을 <보기>에서 언급한 청중을 작품 내용 안으로 빠르게 끌어들이려는 전략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④ 일반적으로 한 작품 속에서 유사한 구절이 반복되면 그 의미나 정서가 강조되기 마련이다. [B]에 표현되어 있는 ‘못 가시리다’의 반복을 <보기>에서 언급한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려는 목적과 관련지어 이해한 것은 적절한 감상이라고 할 수 있다.

5. 극문학
2009.09 [38~40]
'파수꾼'

이강백, '파수꾼'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우화적 기법을 통해 권력의 위선적 실체를 통렬히 풍자하고 있다. 1970년대 안보 정책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 집단의 모습은 이리떼라는 가상의 적이 오히려 체제 유지와 질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춘장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진실을 폭로하고자 하나 춘장의 설득으로 결국 체제에 순응하고 마는 '파수꾼 다'의 모습을 통해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용기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진실을 향한 열망

38. 비판적 사고(작품의 종합적 감상)

정답해설 : 춘장은 편지를 가져와서 편지를 운반한 사람이 도중에 편지를 읽었으며, 사람들에게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떠벌리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며, 어떤 사람은 도끼를 들고 올 것이라 했다. 이 내용은 춘장이 '파수꾼 다'를 설득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고 있다. 즉, 무대 밖의 사건이 무대 내의 사건에 영향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무대'의 개념은 현재 극이 진행되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극중 시간의 흐름은 '파수꾼 나'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을 뿐 전환되지는 않는다. ② 파수꾼들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간적 배경은 망루 정도로 추리할 수 있다. ④ 전반부에서 '파수꾼 가'는 '파수꾼 나, 다'와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또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춘장과 대립하고 있기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⑤ 이 작품의 중심 갈등은 '파수꾼 다'와 춘장과의 갈등이며 이것이 전체의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다.

39. 비판적 사고(자료를 활용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서사극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무대 위의 연극은 연극일 뿐임을 강조하는 서사극은 관객에게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낯설게 하기'의 기법을 활용한다고 했다. 이러한 기법은 해설자가 춘장이 되어 등장할 때 이러한 모습을 관객이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①,②,④,⑤의 내용들은 무대 위의 상황을 현실의 상황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며, 극 자체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의견들이므로 서사극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답] ③**

40. 추론적 사고(어휘 해석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망루 밖의 들판에는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뺨말'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실제 이리 떼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 마을 사람들은 이 '뺨말' 때문에 아무도 들판에 나가지 못한다. 하지만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춘장과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뺨말'을 적절히 활용한다. 즉, '뺨말' 뒤에 잘 익은 '딸기'를 그들만이 취하는 것이다. 결국 '뺨말'은 명분 뒤에 숨겨진 '딸기'라는 실리를 취하게 만드는 춘장의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③**

2009.11 [37~39]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37~39] 시나리오, 홍파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작품해설 : 이 작품은 조세희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조세희의 소설은 1970년대 한국 소설이 거둔 중요한 결실로 평가되는 작품으로 전혀 낙원이 아니고 행복도 없는 '낙원구 행복동'의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난장이' 일가(一家)의 삶을 통해 화려한 도시 재개발 뒤에 숨은 도시민들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을 시나리오로 각색한 지문은 영화의 특성이 잘 드러나게 서로 다른 공간에서 벌어지는 두 사건을 교차편집의 방식으로 번갈아가면서 보여주고 있다.

[주제] 도시 빈민이 겪는 삶의 고통과 좌절

37. 추론적 사고(미루어 알기)

정답해설 : #95에서 인부들이 담벽을 허물고 마당으로 들어왔는데도 난쟁이 식구들은 태연히 앉아 말없이 고기를 구워 먹고 있다. 인부의 대장 눈짓에 따라 인부들은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데 즐거운 낮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인부들은 불이의 집을 허무는 일에 대해 기꺼워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꺼워하다'는 '마음속으로 기쁘게 여기다'는 의미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영수는 말없이 앞만 본다고 했다. 영수가 지나간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영수와 영호가 영희에 대해 무관심한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제시된 상황을 보면 가족 모두가 영희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불이가 '얼굴은 왜 다쳤니.'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영호는 얘기가 복잡하다며 덕분에 고기를 얻었다고 했다. ⑤ 우철은 영희에게 다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고시를 서툰게 쓰는 모습을 보고 직접 고기를 잘라 주기까지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철의 태도에 대해 영희는 약간 화가 나서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38. 추론적 사고(영화의 장르적 특성 이해)

정답해설 :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뚫혀 온다고 했다. 이는 담장 밖이 아니라 담장 안에서 바라본 시선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면 카메라의 위치는 담장 안쪽이며 이 시선은 인부들의 시선이 아니라 불이 가족들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③ 카메라의 시선은 바로 인부들의 시선을 대변하는 것이다.

39. 비판적 사고(관점에 따른 작품의 감상)

정답해설 : <보기>의 관점에 따르면 불이의 집 마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주 플롯'이 되며,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우철과 영희의 이야기가 '부 플롯'이 된다. 이러한 두 개의 이야기가 교차편집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94의 장면은 몽타주 기법으로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 플롯과 부 플롯이 동일한 공간적 배경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④, ⑤ <보기>에서 유사성과 대조점을 활용하면 장면 연계가 매끄럽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두 장면의 유사성은 '고기'이며, 대조점은 고급 아파트와 낡고 무너진

집이다.

2012.11 [37~39]
'산허구리'

함세덕, '산허구리'

작품해설 : 이 작품은 1936년에 "조선문학"에 발표한 함세덕의 처녀작으로, 어촌 마을을 배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산허구리'는 '복조'의 죽음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을 사실적이면서도 서정적으로 그려 내어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한쪽 다리를 바다에 빼앗기고 두 아들, 사위마저 바다에 빼앗긴 채 폐인이 된 '노어부', 노어부의 아내로 큰 아들과 사위를 잃은 슬픔을 미처 추스르기도 전에 둘째 아들 복조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실성해가는 '처', 노어부 부부의 큰딸로 남편을 바다에 빼앗기고 도적질로 연명하는 '분 어미', 그리고 형제를 잃은 슬픔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둘째 딸 복실이와 셋째 아들 석이 등 복조의 죽음을 계기로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사를 통해 펼쳐지는 내용의 비극성은 완결된 비극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산허구리'는 1930년대 극 장르의 확립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한 작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자식을 잃은 절절한 슬픔에 정신줄이 오락가락 하는 처의 행동과 가족 전체를 내리누르고 있는 비극적 삶으로 인한 무거운 분위기 등은 이 극이 관객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작품으로 기억되는 데 일조를 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완결된 비극적 구조의 형식적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극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소극적 현실 인식으로 일관하여 작가 의식의 허약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주제] 어촌 마을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

37. 사실적 사고(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해설 :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각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려는 문제 유형이다. 희곡에서는 대사와 동작을 통해 작품의 내용이 전개되므로, 내용의 파악은 물론 인물들이 각각 어떤 관계로 얽혀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윤 침지'는 덩덤하게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연배의 동질감을 보여주면서 자식을 잃은 노어부의 슬픔에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노어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격한 감정에 휩싸이고 있다. 이는 애쓰게 살아왔지만 고생만 평생 했고 남는 것이 없다는 한탄을 담은 노어부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해 노어부가 윤 침지에게 동의를 구할 때 윤 침지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노어부의 말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라고 볼 수 있다. 말이 없는 행동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데, 윤 침지의 행동은 동의, 공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복조'와 '복실'은 친형제이다. 석이가 복실에게 누나라고 하고, 죽은 복조를 보고 작은 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② '석이'는 복조의 죽음에 대해 큰 슬픔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그런 단계를 지나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 ④ '분 어머니'의 친절이 어디인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⑤ '복실'은 어린 시절을 행복하기만 했다고 여기고 있지 않다. 이는 '연기 한 번 무럭무럭 피어오른 적도 없었지.' 라는 말로 드러나는데, 매우 궁핍하게 살아왔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8. 추론적 사고(특정 제재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복조의 시체를 찾아 동네 사람들이 이를 복조의 집으로 옮겨 온 것이다. 동네 사람들이 복조의 송장을 운반해올 때 물이 똑똑 떨어진다 하는 것은 복조의 송장을 물가에서 찾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복조의 송장이 쇠뿌리로 배 내다가 보니 범바위 틈에 끼어 있었다는 동리 사람의 말은 이런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정보가 상반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동네 사람들이 물이 똑똑 떨어지는 복조의 송장을 들고 오는 것은, 복조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을 시각적 효과로 드러낸다. ③ 무대 밖으로 나간 처의 소리가 계속 들리게 설정함으로써 처가 계속 웃고, 울고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④ 무대 밖에서 일어나는 어머니의 동작을 전달해주는 내용이므로, 관객들이 이전에 일어났던 처의 행동과 관련하여 전달 내용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⑤ 먼동이 튼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 날이 밝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39. 추론적 사고(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의 흐름 속에서 <보기>에 제시된 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하려는 문제 유형이다. 갱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소재이다. 일단 비극적 현실 앞에서 표출되는 노어부의 분노를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노어부와 처의 불안정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처와 노어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갱이'가 '처'가 내면 심경을 직접 토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갱이는 노어부가 가지고 무대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이는 비극적 현실에 대한 노어부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② 갱이는 죽은 복조와 관련이 있으므로 노어부가 갱이를 가지고 들어오자 처는 아들 생각으로 그것을 빼앗게 된다. 이는 처가 노어부를 따라 움직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③ 처는 갱이를 잡아 뺏고 노어부는 그것을 다시 뺏으려다가 멈추고 하는 행동을 통해, 처와 노어부의 충돌의 매개가 되고 있다. ⑤ 갱이에 대한 집착은 죽은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관객들은 처의 행동을 통해 아들을 잃은 처의 허망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처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연민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된다.

직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③ 처는 갱이를 잡아 뺏고 노어부는 그것을 다시 뺏으려다가 멈추고 하는 행동을 통해, 처와 노어부의 충돌의 매개가 되고 있다. ⑤ 갱이에 대한 집착은 죽은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관객들은 처의 행동을 통해 아들을 잃은 처의 허망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처의 비정상적인 행동에 대해 연민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된다.

2017.09 [21~24] '두왕두왕 독 짓는 늙은이'

(가) 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독 짓는 늙은이' (나)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작품해설 : (가)는 황순원의 소설 '독 짓는 늙은이'를 각색한 시나리오로 일생을 독 짓기에 바친 송 영감의 집념과 좌절을 통해 도공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그의 삶을 그려낸 작품이다. 다만 원작이 단편 소설이므로 시나리오에서 많은 각색이 이루어졌는데, 시나리오에서는 가족이 해체되는 원인을 늙음과 젊음, 돈과 비인간성이 원인이 됨을 대립적인 인물의 유형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독 짓는 노인의 장인 정신과 비극적인 삶

작품해설 : (나)는 일생을 독 짓기에 전념한 송 영감의 집념과 좌절을 통해 세계와 치열하게 대결한 한 인간의 비극적인 삶을 소설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특히 독을 굽는 자신의 가마 안에서 최후를 맞는 장인의 모습은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 준 세계에 대해 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그려 내고 있다.

[주제] 독 짓기를 향한 장인의 굴하지 않는 집념

21. 외적 준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정답해설 : 송 영감은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병색이 완연하였기에 독을 짓는 과정의 진척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이로 인해 숯내를 많이 마시게 된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송 영감이 지닌 능력의 한계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아냐! 이건 독이 아냐'라고 외치는 모습을 자신의 미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독에 대한 절망감으로,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독에 대한 장인의 집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한 이해이다. ② 자신이 지은 독을 단순한 '흙덩이'로 바라보는 모습을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장인의 모습으로, 뽕손이가 이겨 놓고 간 '흙덩이'를 독을 짓기 위한 소재로 본 것은 적절한 이해이다. ③ '매섭게 ~ 뿔하니 간다'를 장인의 작품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변 사람과 갈등을 일으킨 결과로, '조수의 환영'을 장인의 내적 갈등이 작품 제작에 전념하지 못하게 한 원인으로 본 것은 적절한 이해이다. ⑤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박살 내 버린 후 그것을 보며 오열하는 모

습을 추구하는 가치에 어울리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병색이 짙은 중에도 작품 제작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열의로 판단한 것은 적절한 이해에 해당한다.

22.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 송 영감은 자신이 제작한 독이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은 독'임을 확인한 후 비통해 하며 독을 모두 박살 낸다. 반면 석현은 '성한 것두 있어요'라고 외치며 이를 막으려 한다. 즉 송 영감은 독의 완결성에 주목한 반면 석현은 쓸 만한 것에 주목하고 있어 두 사람이 독의 완성도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독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송 영감이며, ㉠에서 말끝을 흐리는 옥수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옥수는 송 영감의 병색을 걱정하고 있다. ② ㉡에서 웅손이는 송 영감의 행동에 놀라고 있지만 그것이 송 영감의 오만함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송 영감이 얼마나 병색이 짙은지를 보여 주는 것이지, 그것을 송 영감이 가마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행동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엄마와 조수가 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에 해당한다.

23.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술자가 송 영감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A]에는 '송 영감이 깨어난 일,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다녀갔던 일, 아침에 밥을 먹었던 일, 아이와 저녁을 먹는 일' 등이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서술자에 의해 인물 간의 대화가 간접적으로 진술되고 있지만 서술자의 개입과 평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아이의 말을 통해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소개되고 있지만 송 영감과 앵두나뭇집 할머니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⑤ [A]는 송 영감이 기절했다 깨어난 상황만 서술하고 있고 공간의 거리감에 대한 서술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그것을 통해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4.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가)의 경우 상영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임을 감안할 때,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는 독이 깨지는 것에 대한 옥수의 내면적 아픔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위한 지시문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이를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시각적 묘사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

[오답피하기] ① 송 영감의 관점에서 '백자기의 형태'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당'하다고 진술해 줌으로써 '백자기'를 바라보는 송 영감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에 개연성을 부가하고 있다. ② 송 영감의 행동을 저지하는 웅손이가 송 영감에 의해 '나가떨어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 상황이 실감나게 전달되고 있다. ③ '뚜왕'이 여러 차례 제시됨으로써 독이 모두 깨지는 상황이 현장감 있게 전달되고 있으며, '뚜왕' 소리를 통해 아픔을 느끼는 옥수의 내면과 오염하는 송 영감의 절망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④ 완성되지 않은 독을 '못나게 지어'졌다는 진술로 표현할 때와 달리 '비틀어진 독'과 같이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작품의 미완성을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27~32]
'구름의 파수병', '느낌, 극락같은'

(가)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 (나)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지문해설 : (가)는 시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추구했지만 생활과 시 사이에서 갈등했던 김수영 시인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신을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 화자는 이러한 '반역된 생활'에 몰두하는 자신을 반성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반역의 정신'을 향해 살아갈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활을 위해 시에서 멀어졌던 화자는 다시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이 되기 위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진정한 시를 쓰기 위한 진지한 자기 성찰

(나)는 불상 제작에서 형태와 내용을 둘러싼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다. 부처의 모습(형식)을 중요시하는 동연과, 부처의 마음(내용)을 중요시하는 서연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함묘진과 그의 딸인 함이정, 함이정의 아들인 조송인의 3대의 인물이 동연, 서연과 얽혀 있는 관계가 맞물리면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형식과 내용, 이 두 요소가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예술적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 예술의 본질적 가치 추구

27.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3연에서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주고 /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나의 친구'의 방문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의 친구'의 방

문으로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화자는 1연에서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2연에서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과 '아내', 그리고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4연에서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화자는 6연에서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며 /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1연에서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8연에서 '시를 반역한 죄로 /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이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죄'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3연의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에서 '이미 정해진 물체'는 2연의 '잡스러운 물건들'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2연의 '잡스러운 물건들'은 화자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대상이므로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에서는 생활에 시선을 고정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가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따르면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1연의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화자가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고 하였으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고 하였다. 7연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은, 화자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고 하였다. 따라서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반역의 정신'을 지향하는 것은 화자가 ㉡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라 할 수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에서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고 하였다. 화자가 ㉠에서 ㉡으로 변모하면서 '메마른 산정'에서 '구름'을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구름의 파수병'은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던 화자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29.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화자는 '방 두 칸', '마루 한 칸', '말쑥한 부엌', '애처로운 처'를 나열하면서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A]는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촉발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B]에서 함이정은 개울물을 바라보면서 '얼굴', '얼굴 뒤편 구름', '구름 뒤편 하늘'과 같이 물 위에 비쳐 보이는 대상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물을 마시며 맑고 시원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B]가 의미가 확장되는 대상들의 연쇄를 통해 함이정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A]의 대상들은 '남과 같이 살아'가기 위한 평범한 삶의 조건들을 의미하는데, 화자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A]의 대상들이 화자의 만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B]의 대상들은 개울물 위에 비쳐 보이는 것들일 뿐 함이정의 불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④ [A]에 제시된 대상들은 화자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화자는 이러한 대상들을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있으므로 [A]에서 화자와 대상들 간의 연속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B]에서 함이정은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서연의 얼굴을 '우리 얼굴'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B]에서 인물 간의 단절감이 암시된다고 볼 수 없다. ⑤ [A]와 [B]에서는 대상의 속성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30. 갈래별 특징 파악

정답해설 : ①에서 '상복'을 입고 있던 함이정과 조송인이 '밝은 색 옷'을 입으면서 함이정과 조송인이 서연의 장례식을 치르던 장면에서 서연과 동연이 서로의 예술관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㉔에서 한 가운데 있던 천막이 무대 위 천막으로 올라가게 되면 분리되어 있던 공간이 통합되게 된다. 그러므로 무대 장치의 이동으로 극중 공간을 좌우로 분리시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㉔에서는 조명을 통해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장면에서 개울물은 이 세상과 저세상을 분리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㉔는 조명변화를 통해 개울물에 주목하게 하고 있을 뿐 등장인물들의 갈등 해소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㉔의 뒤에서는 함요진이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가는 행동이 나타나므로 ㉔는 등장인물이 무대 안에서 피아노로 음향 효과를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㉔에서는 인물의 다급한 행동이 나타나 있으므로 ㉔가 소품을 이용해서 극적 긴장 감을 완화시킨다고 할 수 없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부처의 모습’이 아닌 ‘부처의 마음’을 담아내고자 한 서연의 예술관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공간은 ‘하늘’과 대비되는 공간이 아니며, 조승인이 작곡을 하고 있는 장면은 서연과 함이정이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과 연결되므로 이 ‘길’은 서연의 예술관이 조승인에게 전수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6연의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다 보다’에서 화자는 ‘생활’을 상징하는 ‘집’과 ‘시’를 상징하는 ‘거리’ 사이에서 방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과 ‘거리’는 ‘생활’과 ‘시’ 사이에서 갈등하며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화자에게 대비적으로 인식되었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2연의 ‘먼 산정에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에서 화자는 ‘먼 산정’으로 상징되는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먼 산정’은 화자의 생활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응시하게 위해 상정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나)의 ‘작업장’에서는 불상 제작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서연과 동연의 대립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작업장’은 불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연과 서연의 예술관이 부딪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나)에서 개울물의 ‘이쪽’은 이 세상을, 개울물의 ‘저쪽’은 저세상을 상징한다. 그런데 ‘극락문이 열렸다! 극락문이 열렸어!’라고 외치며 서연의 뒤를 따르는 함요진의 행동을 고려할 때, 서연이 향한 개울물 ‘저쪽’은 단순히 저세상을 의미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던 서연이 도달하게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32.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조승

인의 대사는 이후에 등장하는 함요진, 동연, 서연 사이의 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대사에서 조승인이 등장인물의 행동을 평하면서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라는 대사 이후에 극중 사건은 현재에서 서연과 동연이 갈등하던 과거로 전환되고 있다. ②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라는 대사에 등장하는 동연과 서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에 등장하는 함요진의 두 제자이다. ④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대사를 통해 동연과 서연이 서로 갈등하고 있음을 추리할 수 있다. 따라서 동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 갈등의 한 축임을 알 수 있다. ⑤ “돌로도 부처님을 ~ 안 될 건 없지.”라는 대사를 통해 서연은 어떠한 재료로도 부처의 모습이 아닌 부처의 마음을 추구하던 자신의 예술관을 구현해 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서연은 예술에서는 형식이 아닌 내용이 중요하다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인물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2018.09 [23~26]

‘불모지’

차범석, ‘불모지’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하루가 다르게 빌딩숲으로 변해 가는 서울 한복판의 모습과, 거기 둘러싸인 낡은 한옥에서 살아가는 최 노인 일가의 삶을 대비하는 방식으로 1950년대의 어두운 사회상을 조명한 사실주의 희곡이다. 이 작품의 제목인 ‘불모지’는 급격히 성장하는 도시 문명과 전통간의 갈등으로 빚어진 우리 사회의 피해함, 가족의 해체와 세대 간 불화 등을 상징한다.

[주제] 근대화의 추진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족 해체와 세대 간의 갈등

23.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이 글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 중인 서울 한복판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중략’ 바로 다음 부분에서 경수의 대사 중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 같은 말을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서울 중심의 실제 지명을 노출함으로써, 최노인이 자기 집 주변에 ‘멋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리는 상황을 개탄하며 ‘이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거라고 역정을 내는 극중 상황에 사실감이 더해지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언어유희란 말이나 글자를 소재로 놀이를 하는 것을 일컫는다. 즉 말잇기 놀이, 어려운 말 외우기, 새말 만들기,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말장난 같은 것이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인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이러한 언어유희를 활용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

다. ② 집을 둘러싼 각 인물의 내면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장면의 전환을 통해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③ ‘경재’가 제복을 차려 입고 무대에 등장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복장을 통해 ‘경재’의 심리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경재’의 등장, ‘복덕방’의 퇴장, ‘최 노인’의 퇴장과 등장 등에 대한 지시를 이 글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것이 그 인물들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24. 인물의 심리 파악

정답해설 : ㉠에서 ‘어머니’와 ‘경운’은 ‘예? 전세라구요?’라고 말하는 ‘경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수’와 마찬가지로 ‘최 노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줄로 알고 있었기에 놀라서 서로 쳐다보는 상황이다. 뒤에 나오는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뭇 하시게요?’라는 ‘어머니’의 대사,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팔으실줄만 알았어요.’라는 ‘경운’의 대사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최 노인’은 주변에 들어서게 된 높은 건물들 때문에 ‘흔한 햇볕도 안 드는 집’이 되어 버린 집에서 ‘화초며 고추모가 도무지 자라질 않는단’ 사실을 개탄하고 있다. 그러면서 ㉡과 같이 ‘말세야 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② ‘경재’는 변화된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옛날 일만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향해 ‘웅변 연사의 흥을 내며’ 장난스러운 훈계를 한다. 일반적인 대화에 사용하는 말투가 아니라 웅변을 하는 어조로 말을 함으로써 자신의 말에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③ 아들인 ‘경수’의 무례한 말에 화가 난 ‘복덕방’이 흥정을 그만두고 나가자 ‘최 노인’은 ‘김 첨지! 김 선생!’이라고 급히 부르며 따라 나간다. 그 앞의 대화에서 ‘최 노인’은 ‘복덕방’을 계속 ‘김 첨지’라고 불렀다. 이때의 ‘첨지’는 대체로 나이 많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그 ‘김 첨지’가 기분이 상하여 흥정을 깨려하자 그의 마음을 돌려 보고자, ‘첨지’ 대신에 그보다 좀 더 대우하고 존중하는 느낌을 주는 ‘선생’이라는 호칭으로 고쳐 부른 것이다. ⑤ ‘최 노인’이 갑자기 화초밭을 짓밟기 시작하자 화들짝 놀란 ‘어머니’는 말리려고 황급히 뛰어내리느라 신발도 챙겨 신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은 다급한 심리가 행동을 통해 제시된 것이다.

2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은 집을 전세로 육 개월만 내놓겠다는 ‘최 노인’의 계획을 ‘어머니’가 못마땅해 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의 의도를 짐작도 못 하는 것이다. 그리고 ㉡로 인해 ‘최 노인’이 계획을 변경하고 있지도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 밭을 고려해 가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느냐는 ‘경재’의 말에 대해 ‘최 노인’은 ㉢와 같이 말한다. 이는 그가 예전과 달라진 지금

의 각박한 세상을 말세라고 볼 만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아버지의 그 말을 들은 ‘경재’는 옛날 일이 무슨 소용이냐며 오늘은 오늘이라고 말한 뒤, 웅변 연사의 흥내를 내면서, 역사는 쉴 새 없이 흐르고 인생은 변화무쌍하다는 사실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다소 익살스럽게 들릴 듯 한 연설을 하는데, 이것은 아버지에게 변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복덕방’은 ㉣와 같이 말하는 ‘경수’의 태도가 노인인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느껴서 기분이 완전히 상하고 말았으며, 이는 전세 계약을 위한 흥정의 중지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③ ‘경수’는 아버지 ‘최 노인’이 집을 팔려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 노인이 ㉤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잘못 생각했음을 알게 되었다. ⑤ ㉥는 ‘경운’도 ‘경수’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 ‘최 노인’이 집을 팔려 하는 줄 알았다는 말이다. 이를 들은 ‘최 노인’은 ‘흥! 너희들은 모두 한속이 되어서 어쩌든지 내 일을 안 되게 하고 이 집을 날려 버릴 궁리들만 하고 있구나! 이 천하에 못된 것들!’이라며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6. 작품 배경의 의미, 역할 파악

정답해설 : ‘최 노인’은 좌우를 가로막은 건물들 탓에 햇볕이 잘 들지 않아 작물들이 도무지 자라질 않는 상황에서도 화초밭을 정성껏 가꾸어 왔다. 그의 마지막 대사에서 알 수 있듯, 그는 화초밭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다. 그러나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화초밭은 ‘불모지’가 될 지경이고 집을 전세 놓으려던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답답함, 분노, 상실감과 좌절감 등을 느낀 ‘최 노인’은 화초밭을 마구 짓밟으며 ‘이 집 안에서는 되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라고 외친다. 그러므로 화초밭은 ‘최 노인’이 자기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한 것에 허망해하는 감정이 드러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앞부분에서 경재가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 밭을 넘어다보며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화초밭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족들이 화초밭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② 화초밭을 짓밟는 행위가 어떤 면에선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지만, 그것은 울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집을 지키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두 인물의 상반된 행동’이란 말은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최 노인’은 함부로 짓밟고 ‘어머니’는 그 행동을 말리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석하면 적절할 수 있다. 한편 화초밭에 대한 ‘상반된 행동’이란 말이 그것을 소중히 가꾸는 행동과 함부로 짓밟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두 인물’이 아니라 ‘한 인물’의 상반된 행동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 된다.

그리고 ‘두 인물의 상반된 행동’이란 말을 어떻게 해석하든 화초밭에서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④ ‘최 노인’은 현재의 고통이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자책하고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가 화초밭을 짓밟는 것은 자책으로 인한 행위가 아니라 분노나 절망으로 인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